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12 VOL.246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5 지역사회 공연예술 공헌사업
부산여자대학교 BWC댄스컴퍼니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Ⅷ

춤 同舞 同樂

동 무 동 락



지역사회 공연예술 공헌사업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師弟同行)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VIII '춤-同舞同樂'은 부산여자대학교의 스승과 제자, 선비와 후辈가 '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 춤 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창작산실로서 기dyn나고자 기획되었다.

연출/예술감독

김해성(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학과장, BWC댄스컴퍼니 춤 예술감독)

특별출연

박명현(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농악 이수자)

안무/출연(부산여자대학교 교수진)

김해성, 서덕구, 김민교, 신유정, 김은영
이혜리, 박수화, 윤성주

2025년 12월 20일(토)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 부산여자대학교

주관 | 부산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BWC 댄스컴퍼니, 김해성무용단

후원 부산여자대학교 문화단체총동아리협회

부산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사무소

○ 술 ○ 영남중학교

협찬 서장재일의원 (주)서하산인 (주)해인기술

부산한울립 국악기

KBSA (사)대한청소년스포츠아카데미

대한웰니스협회

신주례태권도

(주) BB필라테스

GOM4US) 끌피리스

아이비어링이집

공공평 그린나라아민이집

성동여자대학교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051-850-3261

bwcdance@naver.com

2025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생활과 예술을 잇다

예술 잇지



웰빙댄스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한국무용교실
(기초/심화)

팡팡노래교실

아랑고고장구

2025. 12. 4. (목) 오후6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어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m² (240석)

회의실 87.62m²

3층 전시실 122.57m²

4층 전시실 116.32m²

4층 연습실 102.12m²

2층 연습실 94.05m²

1층 연습실 52.62m²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12

DECEMBER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부산시민관악단 정기연주회 010-2918-0010 18시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2 부산시진작가협회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3,4층 전시장) 051)631-4111 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3 티움교육 안중근임대기 갤러리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3,4층 전시장) 051)631-4111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평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4 예술잇자 18시 부산시진작가협회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3,4층 전시장) 051)631-4111 줄거운 가곡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6시 아랑고장구(2층 연습실) 14시30분~16시 가곡교실(2층 연습실) 13시~14시30분 (이전) 부산시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	5 오륙도 무용단 제2회 정기공연 010-5511-5526 19시30분 부산시진작가협회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3,4층 전시장) 051)631-4111 시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6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7 부산시민관악단 정기연주회 010-2918-0010 18시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8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9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평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10 신라대학교 미래융합학과 졸업정기 공연 010-6664-2914, 19시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1시50분 줄거운 가곡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장구(2층 연습실) 14시30분~16시 가곡교실(2층 연습실) 13시~14시30분 (이전) 부산미술협회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심사 051)632-2400	11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시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줄거운 가곡교실(2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_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_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이전) 부산문화인협회 부산문화대학 051)632-5588	12 장애인연자실천운동본부 비바챔버양상불과 함께하는 부산음악회 010-6664-8541 02)784-9727 14시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13 신라대학교색소폰빅밴드 제1회 색소폰빅밴드정기연주회 010-4744-7192 18시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14 이소운밸리댄스 정기발표회 010-2724-8737 15시 고은포토1826 비엔날레_기억은 오래된 이야기 (3,4층 전시장) 010-7280-2456	15 서로 달아가는 우리아이기 이미숙, 서보은 모녀전 (3층 전시장) 010-7104-7851 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16 서로 달아가는 우리아이기 이미숙, 서보은 모녀전(3층 전시장) 010-7104-7851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평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17 부산문인협회 제4차 이사회 051)632-5888, 15시 서로 달아가는 우리아이기 이미숙, 서보은 모녀전(3층 전시장) 010-7104-7851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1시50분 줄거운 가곡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장구(2층 연습실) 14시30분~16시 가곡교실(2층 연습실) 13시~14시30분	18 경성대학교교음원 경성대학교교음원 010-8879-6661, 17시 서로 달아가는 우리아이기 이미숙, 서보은 모녀전(3층 전시장) 010-7104-7851 댄스스포츠(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줄거운 가곡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한국무용 교실_기초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_심화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이전) 부산문화인협회 부산문화대학 051)632-5888	19 서로 달아가는 우리아이기 이미숙, 서보은 모녀전 (3층 전시장) 010-7104-7851	20 JM양상불 클래식으로 만나는 주토피아 "동행" 010-3198-1035, 16시 서로 달아가는 우리아이기 이미숙, 서보은 모녀전 (3층 전시장) 010-7104-7851 (오후) 부산국악협회 제2차 이사회 051)644-5211
21 모멘텀아트 기죽뮤지컬 헛두끼기인형 010-2930-7325 10시30분 12시30분 14시30분 서로 달아가는 우리아이기 이미숙, 서보은 모녀전 (3층 전시장) 010-7104-7851	22 김태희 네일로 그리는 이야기(2층 전시장) 010-4542-5322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23 김태희 네일로 그리는 이야기(2층 전시장) 010-4542-5322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평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24 부산방도프리미엄 발도프리미엄예술제 010-3569-5449, 19시30분 김태희 네일로 그리는 이야기(2층 전시장) 010-4542-5322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평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25 부산방도프리미엄 발도프리미엄예술제 010-3569-5449, 19시30분 김태희 네일로 그리는 이야기(2층 전시장) 010-4542-5322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평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연습실) 17시30분~19시	26 모리문화예술원 두드림콘서트 010-3064-6454 18시30분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2025 국비아이메모리전 _문인협회 (3,4층 전시장) 051)631-1377	27 라리안스무용학원 제6회 정기공연 010-5099-1598 17시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2025 국비아이메모리전 _문인협회 (3,4층 전시장) 051)631-1377
28 김현승 TOUCHSTONE v (김현승기아금독주회) 010-5361-2006 13시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2025 국비아이메모리전 _문인협회 (3,4층 전시장) 051)631-1377	29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2025 국비아이메모리전 _문인협회 (3,4층 전시장) 051)631-1377 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오후)부산미술협회 2025 정기감사 051)632-2400	30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2025 국비아이메모리전 _문인협회 (3,4층 전시장) 051)631-1377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평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오후)부산미술협회 2025 정기감사 051)632-2400	31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2025 국비아이메모리전 _문인협회 (3,4층 전시장) 051)631-1377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평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연습실) 17시30분~19시 (오후)부산미술협회 2025 정기감사 051)632-2400			

예술
부산

ART BUSAN MONTHLY
VOL.246

2025 DECEMBER 12

CONTENTS

권두칼럼

- 08 예술은 국력이며 파워Power다 _ 박인호

예서제서

- 10 부산아트빌리지 흥 축제
16 2025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
18 제63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NEXT WAVE: 부산, 미래를 그리다
22 제63회 부산예술제
부산국악협회 전통음악한마당 _ 박준영
부산문인협회 제12회 지역문학교류전
부산연극협회 제8회 작강연극제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제26회 부산실버가요제
부산꽃예술작가협회 꽃예술제
부산차문화진흥원 세계음다풍속
32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작展
34 제51회 부산미술대전
37 김용기 개인전
38 제4회 황지인의 춤 – 영남소리에 실은 바람의 춤 _ 박준영
40 부산예총, 상하이 예술계와 문화교류 협력 강화



표지_클래식 물결, 부산의 울림_2025. 10. 22. 부산콘서트홀

2025 전국체전 연계 스포츠예술 콘텐츠화 사업 '부산아트빌리지 흥축제'



08



50



52



54

- 41 예술을 후원하다 – 경동건설 김정기 대표,
(사)부산예술후원회 제3대 회장 선출 /
부산예총에 발전기금 3천만 원 전달

포토에세이

- 42 울산 쇠부리 축제 _ 안준관

수필의 뜰

- 46 위민 인 레드 _ 송명화

인물포커스

- 50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_ 정혜주

예인팀방

- 52 연출가 이승환 _ 박준영

예술가열전 239

- 54 범전 梵田 서재만 화백 _ 백근영

손으로 쓴 문학

- 58 별똥별 _ 문영길

들여다보기

- 60 음악/ 제63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_ 김윤선
62 문화/ 제21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송대 흑유다완의 세계 _ 김윤화
64 연극/ <아버지와 살면> _ 김영희

기획연재

- 66 건축과 서예 X VIII
- 한 시대의 건축미를 전각으로 완성한 예술가 운경 남정구 _ 이현주
70 세상의 窓 -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속살' 담은 류성룡의 징비록,
'2025년의 대한민국 상황'을 경계한다 _ 심수화
74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4화 「용두산 엘레지」와 194계단 _ 이용득

- 78 예총·전시·공연 뉴스

- 80 신간안내

- 81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12월 통권 246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5년 11월 25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은 국력이며 파워Power다

글 _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예술은 진정한 삶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품고 있는 깊은 감정과 사유의 결정체이다. 예술과 삶은 서로를 비추며 이어져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모방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다. 이제 예술을 단순한 기교나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는 지났다. 예술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선사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부산 곳곳에서도 새로운 예술문화의 싹이 힘차게 움트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무용제, 바다미술제, 그리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까지 한 해 동안 부산은 예술과 문화, 스포츠의 생동감으로 가득 찼다. 여기에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이 울려 퍼지는 부산콘서트홀의 개관은, 이 도시가 세계적 문화도시로 향하는 여정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

부산은 곧 개항 150주년(2026.2.26)을 맞이한다. 바다는 부산의 출발점이었고, 항만의 역사는 도시의 정체성이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항 1부두를 대표적인 근대유산이자 산업유산으로 등록하며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이어 '북항 재개발 성공을 위한 창조적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어 '부산항역사관' 건립의 필요성과 산업유산 기반의 공공문화 실험'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부산은 그 유산을 품고, 품격 있는 예술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품격이란 결국 삶의 태도이자 도시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술이 있다.

오늘날 문화는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된다. 스페인 북부의 산업도시 빌바오는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로 불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한때 철강과 조선업의 쇠퇴로 깊은 침체에 빠졌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해 수변공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시 전체를 예술과 문화의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예술문화 도시로 부활했다.

일본 가가와현의 나오시마 역시 현대미술의 힘으로 되살아난 섬이다. 과거 산업폐기물로 오염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 쇠락했던 이곳은 오늘날 세계인이 찾는 예술의 섬으로 변모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과 클로드 모네, 제임스 터렐, 월터 드 마리아, 이우환 등 거장의 작품이 어우러져 ‘현대미술의 성지’라 불린다. 나오시마의 변화를 이끈 후쿠타케 소이치로는 ‘예술은 함께 잘 사는 삶을 위한 사유의 과정’이라 말하며, 아름다운 섬을 파괴한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와 성찰을 예술 속에 담아냈다.

뉴욕의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지역은 한때 250여 개의 도살장과 고기를 가공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곳이었다. 저렴한 임대료를 쫓아 모여든 아티스트, 작가, 패션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입주하면서 예술적 실험의 무대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날 그곳은 뉴욕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활력 넘치는 예술지구로 자리 잡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예술은 언제나 문명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꽂힐 수 있었던 것도 메디치 가문의 과감한 예술 후원 덕분이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으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후원하며 피렌체를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예술은 도시의 위상과 명예, 그리고 정신적 지배력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예술은 국력이며, 곧 파워power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회가 품고 있는 정신의 깊이와 시민의 감수성, 품격을 예술이 드러낸다. 세계의 시선은 언제나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를 향한다.

오늘의 부산이 새롭게 피어오를 미래의 르네상스를 꿈꾼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술이 있어야 한다. 예술과 문화산업은 도시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동시에 그 정신적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과 옥션이 살아 숨 쉬는 도시,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항구,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도시 부산의 모습일 것이다.

2025 전국체전 연계 스포츠예술 콘텐츠화 사업
부산아트빌리지 '흥축제!!!'

'흥'을 욕망하는 너와 나

2025. 10. 21. ~ 22.

영화의전당

흥축제 개막식 현장

개막식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전남예총 임점호 회장과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

개막식은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로비에서 진행됐다. 브이브라스의 금관악기 공연으로 문을 연 개막식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 고인범 영화의전당 대표,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 인천예총 김재업 회장, 세종예

총 이광수 회장과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을 비롯한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의 피날레는 대동춤으로 꾸며졌으며, 하나로 어우러진 흥겨운 춤판 속에서 참석자 모두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흥축제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이대호(전 야구선수)



- 1 경기민요
- 2 경기예총 장구총
- 3 부산연극협회 좀비댄스
- 4 부산연예예술인협회
- 5 어울무용단 진쇠춤

명사의 특강은 10월 21일 오후 4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진행됐다. 축하 공연으로는 제14회 젊음의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리온트리오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선율로 차분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강에서는 이대호 전 야구선수가 스포츠 정신과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관련한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관객들과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버스킹 공연은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영화의전당 야외마당에서 진행됐으며,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첫째 날은 오후 6시 30분까지, 둘째 날은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버스킹에는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연극협회, 동아대학교, 경기예총, 진주검무보존회 부산지부, 어울·수려·어름·예송·디딤전통 무용단 등이 참여했으며, 가야금병창, 경기민요와 사상문화원, 을숙도예술마루, 아리예술봉사단 등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총 3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버스킹 무대 덕분에 축제의 흥은 끊이지 않았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춰 각자 취향에 맞는 공연을 즐기며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다.

“내 주식만 떨어져서 고통, 체지방이 안 빠져서 고통, 카톡을 안 읽어서 고통, 친구가 잘나가서 고통, 이 또한 지나가리~~~” 뉴진스님의 EDM(DJ) 파티는 관객을 모든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고, 흥으로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 또한 지나가는 밤’이 아쉬울 만큼 뜨거운 순간이었다.

10월 21일 저녁 7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이바디예술단의 웅장한 대북 퍼포먼스는 낮 동안의 분주한 분위기에 무게감을 더하며 흥축제 메인 공연의 서막을 알렸다.



뉴진스님 EDM(DJ)



1



2



3



4

1 박상용용무용단 2 소프라노 고은슬 3 이바디예술단 대북 퍼포먼스 4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안형수

다소니음악회



10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는 <다소니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부산 지역의 여러 합창단이 대거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선보였다. 첫 무대는 해운대구어린이합창단이 장식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부산갈매기」를 부르자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고, 이어진 금정구여성합창단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강강술래」를 원숙미 있게 표현해 우아한 무대를 만들어냈다. 사하구장미여성합창단의 「추억의 우리 노래」는 개성 있는 뮤지컬 형식의 합창으로 구성되어, 연이은 무대 속에서도 지루함 없이 볼거리를 제공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산

곳곳에서 일상을 예술로 채워가는 이들의 모습은 부산이 예술의 도시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구 날뫼북춤보존회에서는 대구 비산동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영남 지역 대표 민속춤 「날뫼북춤」(대구시 무형문화유산 제2호)을 힘찬 발놀림과 신명 나는 북가락으로 선보이며, 울림을 온 사방에 펴뜨렸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무대에 오른 남도민요 팀은 「농부가, 풍년가」를 구성지게 불러 전통 가락의 흥을 전했다. 이어 등장한 나태주는 특유의 무대 매너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객석을 다시 흥의 물결로 채웠다.

1 대구 날뫼북춤보존회 2 가수 나태주 3 해운대구어린이합창단 4 금정구여성합창단 5 사하구장미여성합창단 6 남도민요



부산건축가회_건축물 모형 만들기



부산문인협회_삶에 스미는 문학, 흥에 취하다



부산차문화진흥원_차와 함께한 문화의 향유



부산국악협회_전통악기 만들GO!소리내GO!



부산음악협회_다양한 악기 체험 및 만들기



부산미술협회_흥판화 팽팽!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반려식물(테라리움), 꽃다발 만들기



부산무용협회
부산시민대동춤 배우기 및 무용의상체험



[문화관광지 탐방]영화의전당-바다미술제
-감천문화마을- 아르떼뮤지엄-영화의전당



클래식 물결, 부산의 울림

2025. 10. 22. 오후 7시 30분 부산콘서트홀

2025 전국체전 연계 스포츠예술 콘텐츠화 사업인 부산아트빌리지 ‘홍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클래식 음악으로 장식됐다.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오르가ニ스트 장대호의 연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BWV 565」는 강劲하고 웅장한 오르간의 음색으로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관객들을 깊은 몰입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어 우리나라 우레초 주비야가의 지휘 아래 부산을 대표하는 유나이트코리안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프란츠 폰 주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주요 작품을 선보였다.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바이올리ニ스트 김재원도 협연자로 참여해, 높은 기교와 표현력이 돋보이는 프란츠 와스만의 「카르멘 판타지」를 품격 있게 완성했다. 1부의 마지막은 수영구흔성합창단, 본콰이어합창단, 수영구여성합창단 등 130여 명의 합창단이 충출동해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페라 〈일 트

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칼 오르프 오페라 〈카르미나 부라나〉 중 「운명의 여신이여, 세계의 여왕이여」를 올림 있게 소화하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에서는 부산 출신 청년 성악가 바리톤 이승민과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이 무대에 올랐다. 영화 OST 〈여인의 향기〉의 「간발의 차이」,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의 「밤새도록 춤출 수도 있었어요」 등을 비롯해 오페라 〈이탈리안 터키인〉 중 「만일 내 행복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 〈세비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마을의 만능 일꾼」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완성했다. 이번 홍축제는 10월의 가을날, 영화의전당과 부산콘서트홀이라는 부산의 대표 예술문화공간에서 지역 예술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 전통부터 대중 음악, 클래식까지 아우른 이번 축제가 앞으로 부산을 예술의 도시로 우뚝 세우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편집실



2025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

2025. 10. 28.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가을 저녁,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은 한 해의 예술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려는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젊은 국악팀 [조선버전]의 흥겨운 오프닝 무대로 막이 오른 2025 부산예술상 시상식은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오수연 회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술이 있다”고 강조하며, 예술이 도시의 품격을 완성하고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부산예총이 추진한 ‘홍축제’, ‘갈매랑축제’ 등 대형 사업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넓히고 부산예술의 저변을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 부산예술상_부산예술대상 2 부산예술상_부산젊은예술가상 3 부산예술상_청년작가특별상
4 예술문화공로상_부산시장상 5 예술문화공로상_부산시의회의장상 6 예술문화공로상_부산상공회의소회장상 7 예술문화공로상_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이어진 시상에서는 부산의 예술문화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예술문화공로상’이 먼저 수여됐다. 부산시장상은 (주)지맥스 정성우 대표와 (주)포엠 정광현 대표에게 돌아갔고, 부산시의회의장상은 (주)협성건설 김정룡 부회장과 부산일보 정달식 논설위원이 받았다. 뒤이어 부산상공회의소회장상은 조윤희(국악)와 고승호(문인)에게,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은 조영숙(미술)과 박종관(음악)에게 수여됐다. 무대 위를 가득 채운 꽃다발과 박수 속에서, 묵묵히 예술계를 지탱해 온 이들의 오랜 헌신이 환히 빛났다.

올해 부산예술대상은 안용대(건축), 서지영(무용), 최삼화(음악)에게 돌아갔다.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의 깊이를 확장해 온 세 사람은 무대에 올라 감사와 책임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사회자가 상금 500만 원의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을 던지자, 안용대는 “부산 건축계를 위해 쓰고 싶다”고 답하며 지역 예술에 대한 애정과 소명을 드러냈다. 수상자들의 진솔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서 ‘예술이 곧 삶’이라는 이들의 태도와 무게가 잔잔하게 전해졌다.

창작의 새로운 바람을 상징하는 부산젊은예술가상은 시상금 300만 원과 함께 김종택(미술), 이현우(음악)에게 돌아갔다. 두 젊은 예술가는 앞으로도 꾸준한 창작과 지역과의 긴밀한 연결을 약속하며, 부산 예술의 미래를 밝힐 든든한 등불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지역 청년예술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작가특별상은 올해 안국선원의 특별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르를 대표할 예술적 잠재력을 지닌 청년에게 시상되는 상이다.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 가운데, 정경화(문인)·이종윤(무용)·정안용(미술)·백수정(연예예술)·차호철(음악) 등 다섯 명의 예술가가 이름을 올렸다. 무대 위에서 전해진 이들의 포부는 젊지만 단단했고, 각자의 장르를 넘어 부산 예술계의 새로운 동력을 예고했다.

짧지만 의미 깊은 시상식이었다. 서로 다른 장르에서 예술의 시간을 묵묵히 쌓아온 이들이 부산이라는 중심축 아래 한 무대에 서서 나눈 감사와 다짐은, 부산 예술문화의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비추는 빛이 되었다.

/ 편집실



개막선언을 하는 오수연 회장과 박형준 시장

제63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NEXT WAVE : 부산, 미래를 그리다

2025. 10. 29.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저녁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예술의 물결을 기다리는 열기가 서서히 차올랐다. 'NEXT WAVE: 부산,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 제63회 부산예술제 개막식은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축제의 첫 장이었다.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기대는 무대를 향해 고요히 일렁였고, 예술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비추는 힘이라는 믿음이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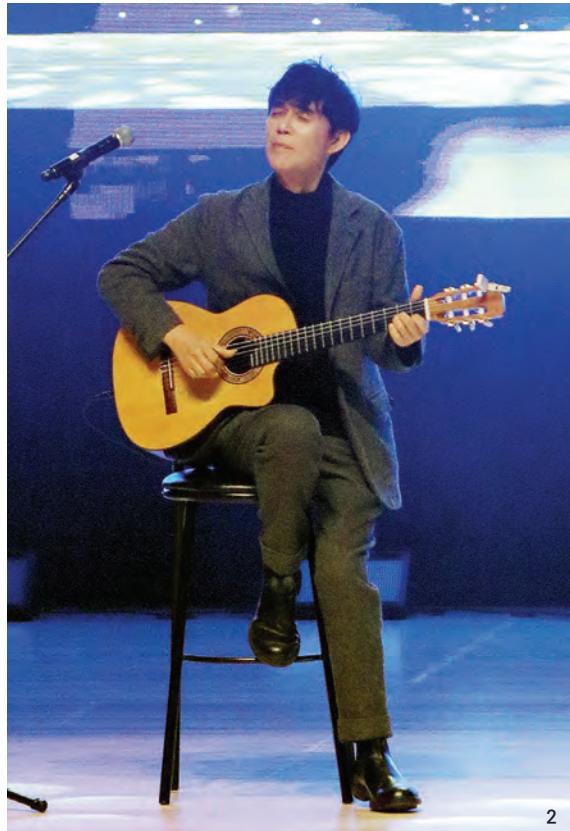
1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대극장 정문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을 찾았다. 그는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은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시민들이 더 폭넓게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대는 전통의 깊은 울림으로 문을 열었다. 30명이 한 무대에 선 가야금병창의 합주가 「사랑가」, 「사철가」, 「풍년노래」를 차례로 들려주자, 가야금의 섬세한 결이 집단적 호흡과 만나 대극장을 하나의 거대한 공명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어진 부산예술회관 합창단의 「우리」, 「보헤미안 랩 소디 Bohemian Rhapsody」는 따뜻함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한층 더 열어주었다.

전통춤의 미학은 [김진홍전통춤보존회]의 ‘동래한량춤’에서 빛을 발했다. 갓과 부채, 흰 도포 자락이 장단에 맞춰 유려하게 흐르자 부산 고유의 멋과 흥이 살아난 듯했으며, 춤사위의 선 하나에도 오랜 전통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이어 기타리스트 함춘호와 팬플루티스트 김창균이 무대에 올라 「가시나무」와 「Moon River」 등을 들려주며 절제된 서정성과 깊은 호흡으로 객석의 온도를 부드럽게 높였다.

- 1 가야금병창
2 기타 함춘호



2



3



4



5

바리톤 안세범과 베이스 송일도의 무대는 성악 특유의 장중한 힘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벳노래」, 「투우사의 노래」, 「Sperate o figli」 등 굵직한 레퍼토리를 통해 깊고 넓은 울림을 전했으며, 이어 색소포니스트 고민석이 객석에서 깜짝 등장해 「Going Home」, 「APT」, 「Uptown Funk」를 연주하자 분위기는 다시 경쾌하게 반전되었다. 관객과 호흡을 주고받는 그의 유머러스한 무대는 대극장 전체를 하나의 리듬으로 묶어냈다.

젊은 에너지는 스트리트 댄스팀 [헤이데이 & GNB]가 이어받았다. 다양한 스트리트 장르가 한 무대에서 유기적으로 섞이며, 부산의 밤거리를 옮겨놓은 듯한 생동감과 역동성이 펼쳐졌다. 'NEXT WAVE'라는 주제가 가장 또렷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6

3 바리톤 안세범 4 베이스 송일도

5 색소포니스트 고민석 6 헤이데이&GNB_스트리트 댄스

7 팝페라 가수 복지은

클라이맥스는 팝페라 가수 복지은이 장식했다.

『The Power of Love』, 『Nella Fantasia』,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한 편의 서정적 장면을 무대 위에 완성했다. 단단한 발성과 감성의 균형이 돋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대극장의 빛틈을 모두 채우며 개막식의 여운을 깊게 만들었다.

서로 다른 장르가 하나의 파도처럼 이어진 이날 무대는 예술의 현재와 미래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었다. 제63회 부산예술제 개막식은 부산이 예술을 통해 미래를 그리는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으며,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 편집실



7

제63회 부산예술제

부산국악협회

전통음악한마당 가을이야기

2025. 10. 19.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웃깃을 스치는 바람에 가을의 냉기가 물어나는 저녁,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무대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졌다. 제63회 부산예술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부산국악협회(회장 강명옥)가 마련한 〈전통음악한마당 - 가을이야기〉로, 가을의 애잔한 정취 속에서 우리 음악이 지난 서정과 흥, 그리고 삶의 깊이를 담아냈다. 시조창과 가야금병창, 민요, 소고춤 등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그리움'과 '풍년의 기쁨'을 두 축으로 삼아 한국 전통음악의 정수를 관객 앞에 고요히, 그러나 깊이 있게 펼쳐 보였다.

1부의 제목은 〈애수의 가을밤(그리움)〉이었다. 첫 무대는 거문고와 가야금의 합주로 시작된 산조 연주였다. 오은영(가야금)과 오상훈(거문고)이 선사한 2중주는 서로 다른 악기의 음색이 교차하며 절제된 긴장감을 자아냈다. 12줄 가야금의 맑고 섬세한 선율 위로 6줄 거문고의 깊은 저음이 더해지자, 한 폭의 수묵화 같은 균형미가 완성됐다. 가야금의 투명

한 울림과 거문고의 묵직한 공명은 서로를 감싸며, 조화로운 앙상블을 만들어냈다. 이어진 '사랑과 이별'에서는 [부산 시립무용단]의 박미나·장영진이 사랑의 시작과 끝을 몸의 언어로 풀어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감정의 곡선이 절제된 동작 속에 녹아 있었고, 두 무용수의 시선과 손끝에 머문 미세한 떨림은 가을 특유의 쓸쓸함을 전했다. 푸른 조명을 배경으로 펼쳐진 무대는 마치 계절 그 자체가 춤이 되어 흘러가는 듯했다. 정인경의 시조창 「사랑」은 이날 무대의 정서적 중심이었다. "달아 너는 어찌하여 찬 빛만 내 쏘느냐"로 시작되는 시조의 고전미는 정제된 발성과 단단한 음색으로 관객의 마음을 올렸다. 손윤하의 대금이 더해지자 청아한 선율이 시조의 여운을 한층 깊게 감쌌고, 노래와 악기가 서로의 호흡을 주고받으며 서정적인 무대의 절정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선보인 가야금병창 「애수의 가을밤」과 「독수공방」은 가을비 내리는 밤, 그리운 임을 흘로 옮조리듯 애잔한 정서를 남겼다. 여린 가야금 선율 위로 김현정·





1

2



3

4

1 가야금 병창 1부 2 가야금 병창 2부
3 사랑과 이별 4 풍년의 축제

최서윤·정주연·신하율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쓸쓸함 속에
서도 따스하게 변지는 감정을 전했다.

2부는 <만추(풍년의 기쁨)>라는 제목으로, 한껏 흥겨운 분위기
로 채워졌다. 강명옥 부산국악협회 회장이 직접 참여한 가
야금병창 「방아타령」과 「풍년놀이」는 농악에서 파생된 민
요답게 들판의 활기와 농부들의 웃음을 고스란히 담아냈
다. 경쾌한 장단이 이어지자 객석의 어깨도 절로 들썩였고,
무대는 순식간에 들녘의 축제 한마당으로 변했다. 이어진
경기민요 「풍년가」는 이소정과 유명숙의 맑은 음색이 어우
러져 사계절의 세시풍속과 놀이를 경쾌하게 노래했다. '풍년'
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수확의 기쁨을 넘어, 함께 일하고 살
아가는 공동체의 연대를 상징했다. 이해영 안무의 '소고춤'은
농경 사회의 활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속무용으로, 리드미
컬한 북장단 위에 유려한 춤사위가 펼쳐졌다. 김부송·김미
정·이연주·박민내가 출연해 힘찬 소고 장단으로 무대를 가
득 메우며 관객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쾌지나 칭칭 나네」, 「옹해야」가 잇달아 울려 퍼지
자 공연장은 그야말로 흥의 도가니로 물들었다. [부산국극
단]과 남도민요, 가야금병창 팀이 함께한 피날레 무대는 공
동체적 에너지의 절정을 보여주며 관객의 호응을 끌어냈다.
노래와 장단, 손짓과 미소가 하나 되어, 전통음악의 활기 어
린 생명력이 오늘의 무대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이번 <전통음악한마당 - 가을이야기>는 한 해의 끝자락
에서 우리의 삶과 계절, 그리고 전통의 숨결을 다시금 되새
기게 한 시간이었다. 슬픔과 기쁨, 고요와 흥이 한자리에 어
우러진 국악의 선율은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고, 무대
위에서 피어난 노래와 춤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잇
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가을밤의 정취 속에서 전통음악은
다시 살아 숨 쉬며,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공동체가 지닌 따
스함과 잔잔한 위로를 건넸다.

글_박준영

제63회 부산예술제

부산문인협회 제12회 지역문학교류전

시는 깊은 생의 감정과 진실을 품은 사실적 존재

2025. 10. 20. ~ 25.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는 시를 이렇게 말했다.

“존재 자체의 리얼리티 같은, 뭔가 언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느끼게 만든다. 그것이 시가 맡은 역할의 하나가 아닐까.”

시는 시인의 생애를 통으로 썰어 마음과 눈물과 회한을 담아낸다. 몇 개의 단어로, 한눈에 담아낼 수 있는 문장으로 우리 앞에 나온 시는 깊은 생의 감정과 진실을 품은 사실적 존재로 다가온다. 우리는 그 얇디얇은 한 장의 종이를 마주하고 공기의 흐름과 냄새와 움직임, 시선까지 느껴가며 시를 읊조린다. 이것이 시의 세계이다.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혜숙)가 개최한 '제12회 지역문학교류전'을 방문해 사계절을 감상하고, 세상을 여행하며, 수많은 인생을 논할 수 있었다.

내 따귀를 때리고 달아난 봄(박옥위_입춘고양이), 과테말라 스모키향의 커피 한잔을 사이에 두고 한나절 눈빛으로만 서로를 훑은 매미와 여름(기해온_매미가 불잡은 전), 지구가 뒤집힐 것 같은 열대야(신진식_열대야熱帶夜), 가을이 불볕더위를 후리치고, 들판에 알곡이 파도 타고, 텃밭 햇감이 불게 물들고, 만삭의 석류가 그네를 타는 가을(김달현_가을연가), 눈 쌓인 가지에 빼곡히 앉은 어린 새와 생명의 겨울이 가진 행복감(김숙자_겨울동화),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어 봄·여름·가을·겨울을 지낸다.





삶과 희망이 분주한 자갈치 시장(의석 강대영_꿈이 출렁인 부산), 밤 아래 영산강 굽이쳐 흐르고, 팽나무 두 팔 벌려 백 년, 수줍은 동백과 산새들이 지저귀는 석관정(강대식_석관정石串亭에서)에서 쉬어가고, 하늘 떠받친 기암절벽과 첨첩 겹친 산허리 휘돌아 용소 물밑 그림자 오가며 슬퍼 우는 쌍곡 용소(임현택_쌍곡 용소), 동양의 나폴리 통영 앞바다(송준규_섬), 여수 돌산각을 지나고 하태섬에 짐을 푼다(주순보_남도기행). 행간을 넘나드는 윈드서핑이 한가로운 바다에 물길 내며 포말꽃 피우는(홍덕기_진하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까지 둘러보고, 깡깡이마을 양다방에서 계란 동동 띠운 쌍화차(최선희_깡깡이마을 양다방)를 마신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한 지역문학교류전에는 15개 지역의 문학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작품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 3명, 경주 5명, 광주 5명, 대구 5명, 대전 4명, 영월 3명, 울산 5명, 인천 3명, 전남 5명, 전북 3명, 제주 3명, 충북 5명, 포항 5명, 한국(서울) 5명, 부산 98명 문인협회 회원들이 참여해 총 157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부산문인협회 박혜숙 회장은 “지역의 풍토와 역사, 생활과 감정이 녹아든 작품들은 그 자체로 지역성을 빛내는 자산이며, 동시에 한국문학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이다”라며 “이번 교류전을 통하여 부산의 문학이 지닌 해양의 정체성이 다른 지역의 고유한 문학적 색채와 만나 상호 보완적 교감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편집실

1 광주문인협회 노진곤_괜찮다 2 부산문인협회 박혜숙_백남준 숲
3 부산문인협회 이석래_가침박달꽃 4 부산문인협회 이용철_청어구이





프로젝트팀 이틀_모닥불

무대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다수의 배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강연극제〉는 그 사실을 증명하듯, 단 두세 명의 배우만으로도 무대를 온전히 메워냈다. 제63회 부산예술제의 일환으로 부산연극협회(회장 이정남)가 주최한 제8회 〈작강연극제〉에는 프로젝트팀을 포함한 네 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색채의 작품을 선보였다. 소극장의 한계를 무너뜨린 창작자들의 상상력과 배우들의 에너지는 어느 해보다 진하게 빛났고, '작지만 강한 연극제'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금 입증했다.

프로젝트팀 [이틀] 〈모닥불〉

|작가·연출|박준서|무대|황경호|출연진|이동현 김경훈 차승현
작은 불빛을 가운데 두고 마주한 인물들의 대화로 흥미로운 서사를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마왕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용사의 이야기를 그렸으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다. 잃어버린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 홀로 남겨진 자의 외로움, 다가올 결전에 대한 두려움이 모닥불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난다. 판타지의 외피 속에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이 작품은 '공동의 적'에 맞서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도 화합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배우들의 절제된 감정선과 리듬감 있는 호흡이 어우러져, 간결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다. 황경호가 무대예술상을 수상했다.

제63회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협회

2025 제8회

작지만
강한
연극제

극단 [데일리드라마] 〈유산〉

|작가·연출|이영섭|출연진|구민주 강정희 김선이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벌이는 묵은 갈등을 다룬 창작극이다. 큰딸이 아버지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진실과 욕망, 원망과 용서가 교차하는 심리극으로 전환된다. 세대 간 단절과 화해의 감정선이 촘촘히 얹히며 강한 몰입을 이끌었다. 작품은 '유산이란 물질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메시지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다.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선이는 "무대 위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선이 배우는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극단 데일리드라마_유산

극단 [우릿] <시절>

|작가|권상우|연출|강인정

|출연진|이정민 김주연

멈춰버린 시간 속에 흘로 남겨진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미술 전시장에서 우연히 재회한 '그'와 '나'를 중심으로, 학창 시절의 상처와 기억이 서서히 드러난다. 연출 강인정은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통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교하게 직조했다. 현실과 이상,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연출의 시선과 배우들의 절제된 감정 표현은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강인정 연출가는 한형석 연출상을, 배우 이정민은 전성환 연기상을, 김주연은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프로젝트그룹 [울림] <아빠는 순찰 중>

|작가|김지훈|연출|이승환|출연진|유상호 김주환 전자연

폐막작이자 대상 수상작인 <아빠는 순찰 중>은 김지훈 작가의 희곡을 바탕으로,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가족의 관계를 통해 현대 사회 속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묻는다. 자취방이라는 단출한 공간 속에서 가족과 개인, 남겨진 것과 사라진 것의 틈이 섬세하게 그려졌다. 이승환 연출의 정제된 구성과 배우들의 밀도 높은 호흡이 돋보였고, 서툴지만 따뜻한 부자父子 관계의 감정선은 진정성 있게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 유머러스한 장면과 일상의 언어가 조화를 이루며, 현실의 평범한 일상이 가진 예술적 울림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올해 '대상'은 프로젝트그룹 [울림]의 <아빠는 순찰 중>이 차지했다. 허은 심사위원장은 "작다는 데가 아니라 강하다는 데에 작강연극제의 본질이 있다"고 말하며, "무대란 무엇이며 왜 연극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자리였다"고 총평했다. 제8회 작강연극제는 완벽함보다 '시도'와 '진심'의 가치에 방점을 찍은 무대였다. 젊은 창작자들은 현실과 상상,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극장의 공간을 실험의 장으로 확장시켰다. 관객과 배우가 호흡을 나누는 순간마다 '공감의 예술'로서 연극의 본질이 되살아났고, 작지만 강한 무대의 가능성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 편집실

극단 우릿_시절

제63회 부산예술제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제26회 부산실버가요제

무대 위에 선 순간, 우리는 모두 청춘이었다

2025. 10. 26.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내년부터는 ‘부산청춘가요제’로 바꾸면 어떨까요?”

26회를 맞은 <부산실버가요제>가 올해도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초대가수로 무대에 오른 가수 김정현은 “행사명이 ‘실버가요제’보다는 ‘부산청춘가요제’가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날 무대에는 세월을 잊은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했다.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참가자들은 인생의 제2막을 예술로 즐기며, 청춘 못지않은 생기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대상은 홍성월 씨가 차지했다. 그는 「눈물의 술」을 불러 깊은 감정선을 흔들었다. 14번째 순서로 후반부 무대에 올랐지만, 등장과 동시에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푸른 드레스에 빨간 코르사주를 달고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인생의 서사를 노래했다. “취하면 무너지지만 눈물의 술로 나를 달래며, 사랑했지만 헤어지면 끝이더라”라는 가사 속의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고, 세월이 만든 단단한 내면까지 함께 흘러나왔다.

금상은 「마량에 가고 싶다」를 부른 김병호 씨에게 돌아갔다. 세련된 무대 매너와 완성도 높은





1 대상_홍성월 2 금상_김병호 3 은상_황진재 4 동상_정홍자 5 장려상_강병열 6 장려상_김맹곤

표현력이 돋보였다. 이 곡은 시인 도종환의 시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를 토대로 정의송 씨가 작사·작곡한 작품
으로, 남도의 끝자락 강진 마량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
은상은 「추억의 소야곡」을 구성지게 불러낸 황진재 씨가
수상했다. 난도 높은 곡을 노련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정홍자 씨는 「다시 한번만」으로 깊
은 감성과 탁월한 음악적 감각을 아낌없이 선보이며 동상
을 차지했다.

장려상은 「마지막 잎새」의 김맹곤 씨, 「연정」을 부른 강병
열 씨에게 돌아갔으며, 인기상은 화려한 드레스와 함께 「누
가」를 열창한 서금화 씨, 「님의 향기」를 진심으로 표현한 손
영철 씨가 수상했다. 특별상은 「거울 앞에서」로 감동을 전
한 정영주 씨, 「못난 놈」을 불러 힘찬 박수를 받은 이재식 씨

가 받았다.

참가자 모두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지”라는 노랫말처럼 떨림 없는 무대와 진심 어린 열창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에게는 수상 여부보다
‘무대의 주인공으로 다시 선 시간’이 더 큰 의미였다.

김익현 심사위원장은 “올해로 26회를 맞은 실버가요제는
해마다 참가자가 늘고 있다”며 “연세로 인해 음정이 흔들리
는 분도 있었지만, 발성·발음·음정·박자·리듬 등에서 뛰어난
참가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의 총점수를
합산해 공정하게 시상했다”고 밝혔다.

/ 편집실



다”라는 주제에 맞게 절기상 가을의 빛깔과 향기를 머금고 있는 자연물인 꽃과 나무를 주 소재로 활용했다. 공간 속 가변성 작품부터 중형의 꽃꽂이 작품, 아크릴화와 소품을 혼용한 입체와 생동감을 더한 작품까지 다채로운 형태로 구성됐다.

전체적 인상은 자연 속 ‘꽃’을 소재로 이를 동·서양의 전통

제63회 부산예술제

손끝에서 피어난 꽃, 예술의 본질

부산꽃예술작가협회 꽃예술제 꽃 가을을 담다

2025. 11. 7. ~ 11. 9.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

제63회 부산예술제와 연계하여 진행된 부산꽃예술작가협회(회장 최정애)의 ‘꽃예술제’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전시는 “꽃 가을을 담

꽃꽂이와 결합해 작가적 시점에 따라 자유롭게 연결되며, 전시장을 가득 채운 자연의 향기로 풍성함을 더했다. 지역 꽃예술 작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표현된 전시는 다양한 스타일의 테마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작품을 감상하며 다시금 평소 무심코 지나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자연에 있는 꽃과 나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아름답지만 꽃예술 작가의 손길을 거치며 재탄생되면서 새로운 조형예술로 거듭났다. 꽃예술 작품은 자연 속 소재들을 장식적 요소가 아닌, 생명과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게 한다.

전시는 최정애 회장이 연출을 맡아 진행하고, 총기획은 이미라 전 회장을 비롯해 참여작가들과 협업하여 전시 공간과 작품 간 연계적으로 연출했다. 초대작가를 비롯한 총 44명 회원의 열정으로 완성된 작품들은 관객들의 성원으로 더 향기롭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새로이 태어났다.

/ 편집실

제63회 부산예술제 부산차문화진흥원 세계음다풍속 우유구난사향현묘용 又有九難四香玄妙用

2025. 10. 26.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초의선사는『동다송』 제45행에 우유구난사향현묘용 又有九難四香玄妙用 이라 적었다. '차에 아홉 어려움과 네 향이 있어서 서로 현묘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난 중 첫째는 조(제다)이고, 사향은 진(眞)란(蘭) 청(淸) 순향(純香)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진향은 우전 찾잎이 갖춘 싱그러움, 난향은 불기운이 고르게 든 향, 청향은 곁이 타거나 속이 설익지 않은 향, 순향은 안팎이 같은 향'이다. 작은 찻잔 속에 이 오묘한 세계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감각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차문화진흥원(회장 이미자)의 제63회 부산예술제 '세계음다풍속'은 세계 차문화를 한자리에 선보여 시민들이 다채로운 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일본 말차_말자는 차잎을 분쇄해 가루 형태로 마시는 음용법이다. 그늘에서 재배한 잎을 줄기와 잎맥 모두 제거하고 가루로 갈아내기 때문에 물에 타서 마시면 그 빛깔이 선명한 녹색을 띤다. 일본의 다도는 말차 형태로 정착하며 빛전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다실의 예술성에 필요한 꽃과 무사시호일 無事は好日이라 적힌 족자가 함께 준비됐다.

스리랑카 흥차_스리랑카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누와라엘리야는 해발 1,868m의 고산지대로 실론 흥차의 대표 생산지이다. 연중 선선한 기후와 안개 덕분에 찻잎의 성장 속도가 느려 풍미가 깊다. 꽃잎 형태의 찻잔에 밝은 오렌지색을 띠며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을 드리냈다.

중국 운남 전홍 흥차_중일전쟁(1937-1945) 시기 주요 흥차 생산지가 전쟁으로 타격을 받아 중국 정부에서 운남성의 흥차 생산을 지시했다. 운남성은 원래 보이차의 산지였지만 대엽종 찻잎을 활용해 운남 전홍이 탄생했다. 맛과 향이 진하고 깊은 것이 특징이고, 붉은빛이 강한 선홍색의 차색을 가졌다.

이 외에도 대만 청차, 중국 철관음 등을 선보였다. 들여다보며 차근차근 음미해 보는 찻자는 편안했고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차의 종류를 몰라도, 우림법을 몰라도, 티백으로 즐기든 사발에 담아 마시든 형식에 상관없이 차를 즐길 줄 안다면 그날 하루는 조금은 나를 존중하고 대접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얼음 동동 띠어 시원하게 쭉 빨아먹는 아이스 커피 대신 조용히 향과 맛을 즐기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자.

/ 편집실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작 展

2025. 12. 1. ~ 5.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



지난 9월 20일 부산 해운대 송림공원에서 (사)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는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 주제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의 관광자원 및 생활상과 어울려진 모델의 포즈와 해녀를 대상으로,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경치가 어우러지며 일상이 자연스럽게 묻어난 문화예술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본 대회에 참가한 일반 사진 애호가와 사진 동호인이 촬영한 작품 중심사를 거친 수상작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에서 전시된다. 사진예술의 진흥과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사진 인구의 확대와 시민과 사진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마련된 전시는 올해 총 378점 출품작 중 76명의 작품이 수상했다. 대회 당시 장소가 지난 분위기와 인물의 특징을 작가적 시각으로 변환시킨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현장감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작은 부산의 지역적

특징과 인물 간의 고유의 정체성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대회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활기를 고스란히 전달했다. 장소와 인물을 재해석한 작품들은 다양한 이미지와 효과를 통해 상징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주제와 표현 방법에서 참여 작가의 의도가 드러남에 따른 동시대 부산 사진의 현주소를 잘 반영하며 관객들에게 또 다른 예술적 감동을 전달했다. 공모전은 백종기의 「들릴듯한 숨비소리」가 금상의 영예를 안았고, 은상은 금정섭의 「너를 보내며」와 권오준의 「바다여인」에게 돌아갔다. 동상은 배영란의 「자유를 춤추다」, 설혜심의 「한」, 한순자의 「하늘로」가 차지했다.

제주 방언으로 해녀가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올라와 내쉬는 숨소리를 뜻하는 '숨비소리'의 순간을 인물의 표정과 행위를 통하여 극적으로 포착한 백종기의 「들릴듯한 숨비소리」는 인물의 애환을 주제에 맞게 부각한 점이 공모전



2



3

수작으로 뽑혔다. 금정섭의 「너를 보내며」에서는 두 무용수가 홀날리는 색조 천 부채를 들고 있는 뒷모습을 멀리 보이는 바닷가 조형물과 절묘하게 한 화면에 담으며 한국적 정서를 구현한 점이 좋은 평을 받았다. 권오준의 「바다여인」은 해운대 해변가 고층건물을 배경으로 장미를 들고 여유롭게 포즈를 취하는 여인의 순간을 대비적으로 보여줬다. 배영란의 「자유를 춤추다」는 해안가 바위에서 춤을 통한 행위적 묘사를 주제로 예술의 역동성을 투영하고, 설혜심의 「한」에서는 정신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판을 치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품바의 모습을 통하여 표현했다. 카메

라 셔터를 이용한 효과를 무용수의 몸짓으로 부각한 한순자의 「하늘로」가 차례대로 수상작에 올랐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부산 시민들에게 사진예술의 창작증진과 대중적 향유를 경험하게 하며, 시각예술의 다양성과 대외적 확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1 금상 백종기_들릴듯한 숨비소리

2 은상 금정섭_너를 보내며 **3 은상 권오준_바다여인**

4 동상 배영란_자유를 춤추다

5 동상 설혜심_한 **6 동상 한순자_하늘로**



4



5



6

지역 최대 규모 전국 미술 공모전

제51회 부산미술대전

2025. 11. 24. ~ 12. 20.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청

(사)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가 주최하고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 최대 공모전 '제51회 부산미술대전'에서 최인선(민화)이 「다 이루어질 지니」로 통합대상을 차지했다. 부문별 수상작 전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산시청과 부산문화회관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한 해 동안 전국 미술계 동향을 알아보고, 동시대 미술을 관망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 공모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구상·비구상),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판화, 학술평론, 문인화, 수채화, 민화, 불화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

했다. 총 1,483점의 작품이 응모해 806점의 입상작이 선별됐으며, 올해는 분야별 예술적 상상력과 다채로운 시각적 다양성이 눈에 띄는 작품들이 주목받았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부산미술대전은 전국 규모의 공모전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부산 작가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가해 신진 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분야별 다양한 주제에 맞는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전시의 볼 거리를 한 층 높였다는 평가다. 동시대 현대미술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과 조형적 표현들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선사했다. 올해 통합대상 수상작인 최인선의 「다 이루어질 지니」는 치밀한 구성과 뛰어난 표현력, 단순한 모사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 변주를 통해 민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의 붉은 반달이는 사슴·학·나비 등의 문양을 촘촘히 배치해 높은 조형 밀도를 이루며, 금색 나비 장식이 구조적 중심을 형성한다. 좌측에는 책거리 형식의 기물들이 다양한 질감과 패턴으로 배열되어 민화 고유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측 상단의 매와 과일 접시는 화면의 상징적 위계를 확장한다. 배경의 파초는 복



2



- 1 통합대상(민화) 최인선_다 이루어질 지니!
2 우수상(도자) 서유리_Clay Patchwork 3 우수상(서양화 구상) 박미경_웃음의 찰나
4 우수상(서양화 비구상) 장명희_하늘을 건너다
5 우수상(수채화) 성현숙_바다의 기억 6 우수상(한국화) 이성기_제천의 옥순봉
7 우수상(목칠) 김현수_계절의 결(I-녹음의 파도 II-단풍의 파도)

합적인 사물 구도 속에 안정감을 더하며 시각적 호흡을 조절한다. 김수길 총 심사위원장은 “올해 부산미술대전이 전국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됐다”고 밝히며, “특히 민화 부문은 출품 수가 매년 증가해 전통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저변 확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산미술대전이 앞으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문별 우수상은 한국화 이성기 「제천의 옥순봉」, 서양화(구상) 박미경 「웃음의 찰나」, 서양화(비구상) 장명희 「하늘을 건너다」, 수채화 성현숙 「바다의 기억」, 공예(도자) 서유리 「Clay Patchwork」, 공예(목칠) 김현수 「계절의 결(I-녹음의 파도 II-단풍의 파도)」, 디자인 김혜림 「농산물을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 리미네 농장」와 황혜빈





「핸드메이드 가드닝 브랜드 “이파리」, 서예 이영재 「한국원시」, 이인상 「소청」, 문인화 이미영 「소나무」, BNK부산은행장상은 민화 김미애 「보라의 길상」, 특별상은 민화 이순진 「여인의 꿈」, 불화 한경용 「아미타삼존도」가 수상했다. 12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에서는 개막식 및 시상식이 개최된다. 부문별 전시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청 11월 24일~29일, 한국화·수채화 ▲부산문화회관 11월 25일~29일, 조각·판화·공예·디자인·민화·불화, 12월 2일~6일, 서양화(구상·비구상), 12월 9일~13일, 서예, 12월 16일~20일, 문인화.

문의_051)632-2400 / 편집실

- 8 우수상(디자인) 김혜림_농산물을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 리미네 농장
 9 우수상(디자인) 황예빈_핸드메이드 가드닝 브랜드 “이파리” 10 BNK부산은행장상(민화) 김미애_보라의 길상
 11 특별상(민화) 이순진_여인의 꿈 12 특별상(불화) 한경용_아미타삼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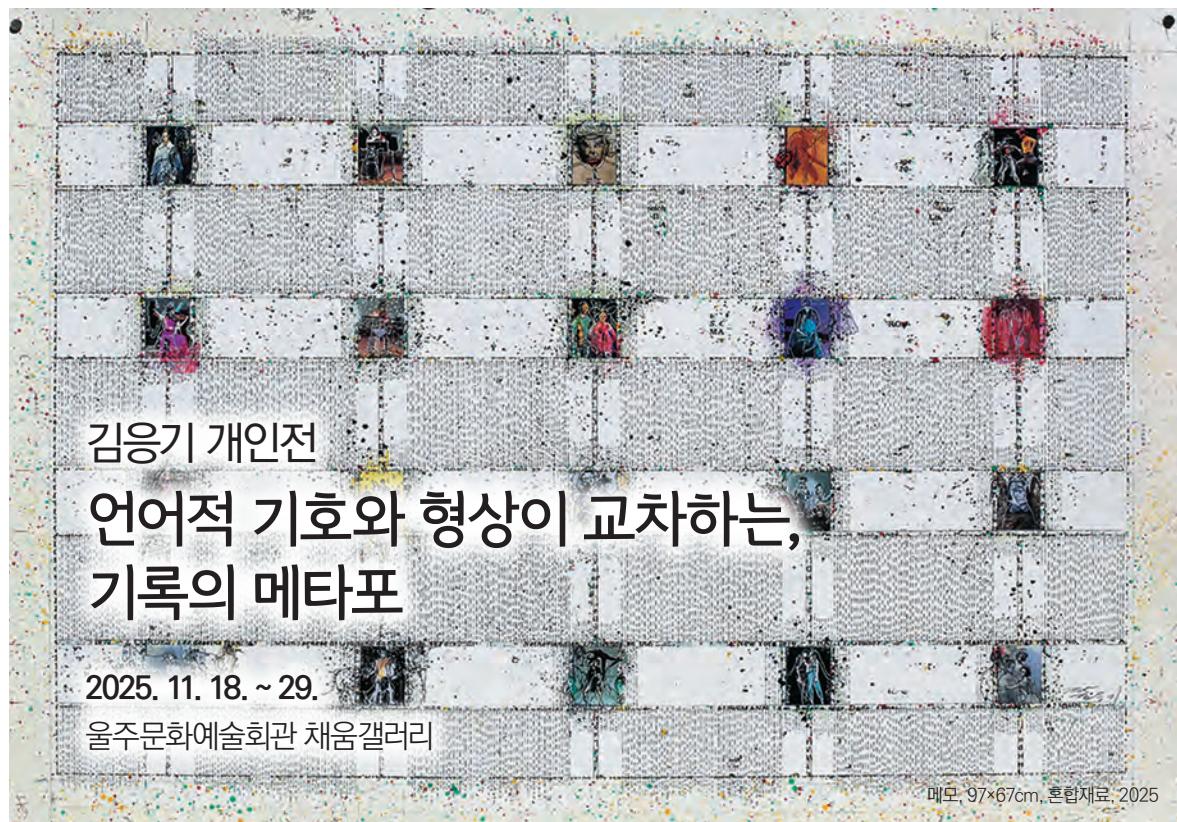
10



11



12



김응기 개인전이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울주문화예술회관 채움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울주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의 일환으로, 올해 여덟 번째 초대 작가로 김응기 화백이 선정됐다.

김응기 화백은 1970년대부터 '메모 Memo' 시리즈를 중심으로 일관된 '글자 지우기' 작업을 이어오며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해 왔다. 그의 작업은 개념미술 Conceptual Art로부터 행위예술 Performative Art,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탈구조주의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조류와 맞닿으며 시대적 감수성을 담아내고 있다. 인쇄 매체의 글자를 짧은 선과 점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소멸과 부재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규칙적 배열을 형성해 화면은

점차 추상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바둑판처럼 구획된 사각형에는 꽃과 곤충, 인물 등 자연의 이미지가 기록되고, 수많은 레이어를 동양적 절제미와 함께 조율해 내는 방식으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와 드로잉 등 총 25점의 작품이 소개됐다.

홍익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김 화백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19회의 개인전과 25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제네바, 타이베이, 홍콩, 프랑스, 바젤 등 세계 주요 아트페어에 출품해 국제적 활동 폭을 넓혀왔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2005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제8회 송혜수미술상, 제66회 부산시 문화상(시각예술부문) 등이 있다.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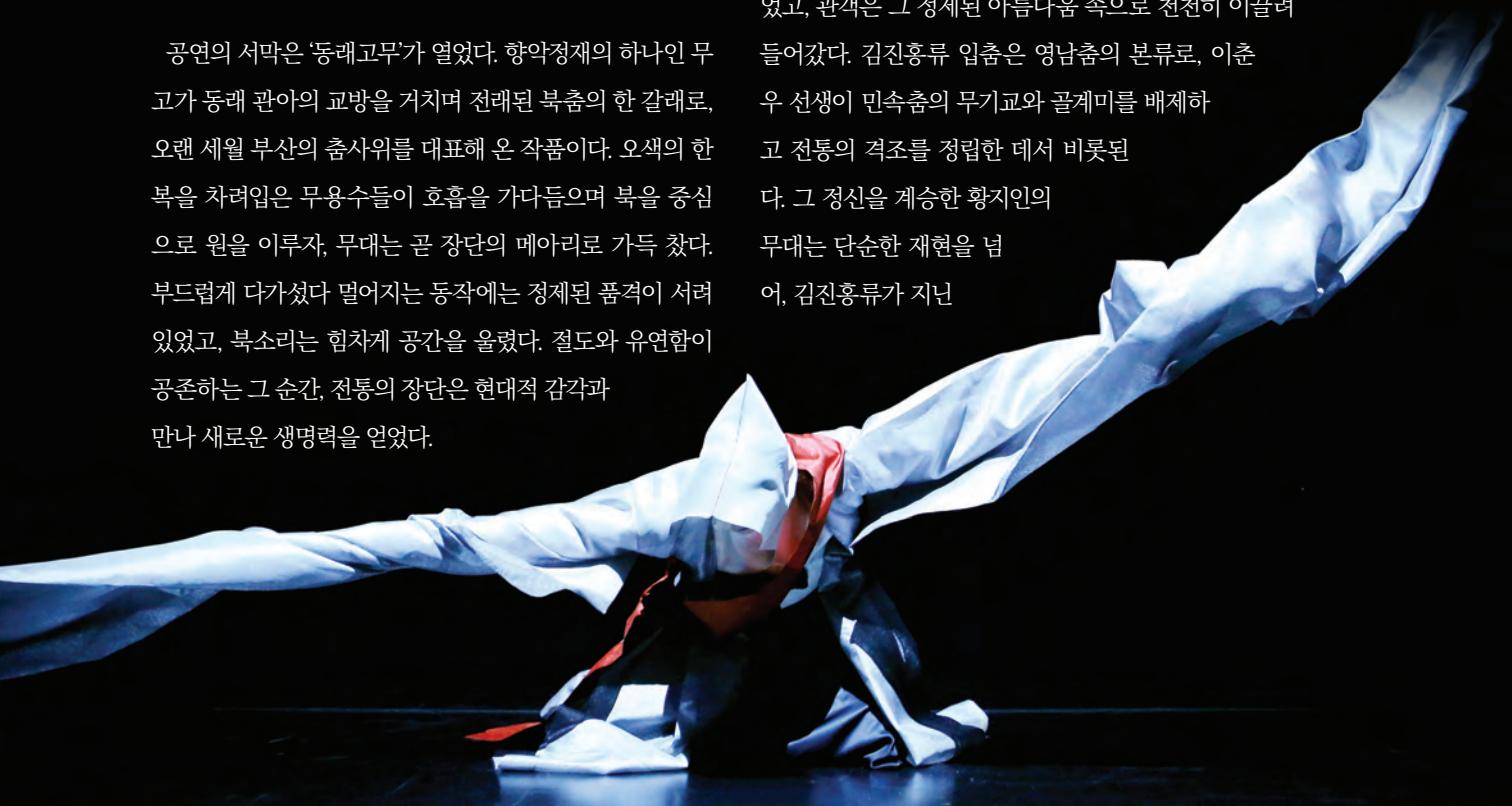
제4회 황지인의 춤
영남소리에 실은
바람의 춤

2025. 10. 24.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가을밤,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는 영남의 소리와 춤이 어우러진 장대한 무대가 열렸다. ‘제4회 황지인의 춤’ <영남소리에 실은 바람의 춤>은 전통의 맥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무대였다. [황지인 무용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공연은 지역 전통 무용의 정수를 한자리에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

공연의 서막은 ‘동래고무’가 열었다. 향악정재의 하나인 무고가 동래 관아의 교방을 거치며 전래된 복춤의 한 갈래로, 오랜 세월 부산의 춤사위를 대표해 온 작품이다. 오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호흡을 가다듬으며 복을 중심으로 원을 이루자, 무대는 곧 장단의 메아리로 가득 찼다. 부드럽게 다가섰다 멀어지는 동작에는 정제된 품격이 서려 있었고, 복소리는 힘차게 공간을 울렸다. 절도와 유연함이 공존하는 그 순간, 전통의 장단은 현대적 감각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이어진 ‘입춤(김진홍류)’에서는 여유로운 선과 균형 잡힌 손끝의 움직임이 돋보였다. 장구(이경섭)·대금(김은경)·해금(조민수)·아쟁(조성준)·피리(황지원)가 어우러진 반주 위에 황지인 단장이 직접 선보인 춤은 전통 춤의 내면적 깊이를 고요하게 드러냈다. 숨결 하나, 시선 하나에도 긴장과 집중의 미학이깃들어 있었고, 관객은 그 정제된 아름다움 속으로 천천히 이끌려 들어갔다. 김진홍류 입춤은 영남춤의 본류로, 이춘우 선생이 민속춤의 무기교와 골계미를 배제하고 전통의 격조를 정립한 데서 비롯된다. 그 정신을 계승한 황지인의 무대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김진홍류가 지닌



본질적 요소인 절제미와 완상의 미를 아우르는 진한 감동을 온전히 되살려냈다. 세 번째 순서 '영남성주굿소리와 사물놀이 앯은반'에서는 조갑용(팽파리), 이부산(장구), 강호규·박상득(복), 이상관(작소) 등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참여해 영남 특유의 흥을 고스란히 전했다. 사물놀이의 경쾌한 장단 위로 조갑용의 영남성주굿소리가 구성지게 얹히자, 객석에서는 자연스레 어깨가 들썩였다. 공연자가 추임새를 청하지 않아도 "얼쑤!"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타악의 속도 감과 호흡이 공연장 전체를 뜨겁게 달궜다.

후반부로 갈수록 무대는 한층 깊어졌다. '승무(김진홍류)'와 '검무(김진홍류)', '지전춤(김진홍류)'으로 이어지는 세 작품은 황지 인무용단의 안무와 예술적 기획이 집약된 대목이었다. 특히 '승무(김진홍류)'에서는 '입춤(김진홍류)'과는 또 다른 결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인간의 경계를 넘어 자연의 영혼을 희구하는 듯한 은은한 의지가 춤으로 승화되었고, 휘날리는 장삼은 한 폭의 비단이 펼쳐지듯 무대를 잔잔하고 우아하게 물들였다. 흰 옷자락이 그리는 선마다 차분함과 긴장이 교차하며, 동작 속에서 깊은 사유가 피어올랐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숭고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권효진·김보은이 선보인 '검무(김진홍류)'는 부드러움 속의 단단함으로 긴장감을 형성했다. 장중미를 품은 대무의 형식미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절제된 동작은 타 검무와는 또 다른 품격을 보여주었다. 장단에 맞춰 이어지는 검무의 선은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날

카로운 결을 지녔고, 무용수들의 시선과 호흡은 마치 하나의 선율처럼 맞아떨어졌다. 각 국악기의 음색이 더해지자 춤과 음악은 서로의 융림을 교차시키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어 황지인·권효진·김보은·박지안·이순자·민현선·허경호가 함께한 '지전춤(김진홍류)'이 시작되자, 공연장은 하얀 지전의 물결로 물들었다. 수십 장의 지전이 허공을 가르며 회전할 때마다 관객의 시선은 자연스레 무용가들의 손끝에 집중됐다. 휘날리는 지전과 무용수들의 유려한 움직임이 어우러지며 무대 위에는 신성하고도 장엄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중을 가르며 떨어지는 종이의 떨림 하나에도 전통 궂이 지난 생명력과 예술적 깊이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이번 무대는 지역 전통무용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선언이었다. 황지인 단장은 전통의 형식 안에 머무르지 않고, 김진홍 선생이 보존한 영남소리와 무용, 그리고 짙은 세대의 감각을 융합해 새로운 미학을 완성했다. 전통예술이 '보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연 도중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던 추임새와 박수갈채가 말해주듯, 관객과 함께 호흡한 이 무대는 막이 내린 뒤에도 오랜 여운을 남겼다. 가을바람이 계절의 정취를 옷깃에 묻히듯 <영남소리에 실은 바람의 춤>이 일으킨 춤의 바람은 우리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국무용과 전통 소리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게 했다.

글_박준영





부산예총, 상하이 예술계와 문화교류 협력 강화

2025. 11. 7. ~ 8. 중국 상하이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이하 부산예총)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상하이 예술계와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을 비롯해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은(부산음악협회 회장) 부회장, 김두진

(부산건축가회 회장) 부회장, 남선주(부산무용협회 회장), 김정원·지영숙(부산무용협회 이사), 김갑용, 김미화, 장은숙, 황지인 무용가 등이 함께했다.

11월 7일 오후, 상하이시문예계연합회 上海市文聯党组 책임자 겸 부주석 세위징 夏煜卿이 부산예총 대표단을 접견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상하이시문예계연합회 부주석 광쿤 方坤, 상하이음악가협회 부주석 겸 사무총장 차오자 乔嘉, 상하이미술가협회 부주석 겸 사무총장 딩셰 丁設, 상하이무용가협회 부주석 겸 사무총장 동린 董林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양 기관 간 예술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예총은 2023년부터 상하이시문예계연합회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상하이희극학원 부속 무용학교가 부산예술제 개·폐막식 공연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양측

이 미술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부산예술제 미술작품 교류전에 상하이미술가협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됐다. 또한 최근 열린 상하이 청년미술대전에서는 부산 청년예술가 이동현 李東賢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문 기간에 부산예총 대표단은 상하이희극학원 무용대학을 방문해 부산무용협회의 전통 무용가들과 상하이 무용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맞춤형 무용 교류 및 시연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8일에는 류하이수 劉海粟 미술관을 방문해 '기계와 지성 - 제18회 상하이 청년미술대전'을 관람하며 상하이 예술계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부산예총과 상하이시문예계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예술제와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가와 단체들이 상호 방문과 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편집실



40 VOL.24 DECEMBER



| 예서제서



경동건설 김정기 대표, (사)부산예술후원회 제3대 회장 선출

부산예총에 발전기금 3천만 원 전달하며 부산예술문화 발전에 힘 보태

(사)부산예술후원회는 제3대 회장으로 경동건설 김정기 대표를 선출했다. 김정기 신임 회장은 2022년 초대 회장인 신라대학교 허남식 총장, 2023년 제2대 회장인 부산영사단 강의구 단장을 이어 부산예술후원회를 이끌게 됐다.

부산예술후원회는 2022년 발족 이후 부산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청년작가 해외 탐방 지원을 시작으로 청년예술인 후원을 위한 기획전시, 팬텀 스타워즈 공연, 김해공항과 동아대병원 로비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 등, 부산 곳곳에서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무대를 만들어왔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8일에는 부산예술후원회 김정기 회장과 조한제 정책위원장이 부산예총을 방문해 부산예술문화를 위한 발전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과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운(부산음악협회 회장) 부회장, 김두진(부산건축가회 회장) 부회장 및 부산예술인이 함께해 지역 예술계의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예술후원회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예술문화사업을 통해 부산예술의 저변을 넓혀가는 비영리단체이다. 김정기 회장은 “앞으로도 부산예술후원회는 예술인 곁에서 함께 봉사하며, 부산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편집실





울산 쇠부리 축제

(장소 : 부산시민공원)

넓은 화각 속에 담긴 울산 쇠부리 소리는
전통 예술문화의 아름다운 율동의 미가 넘친다.

특히 관객에게 깊은 동감의 이야기거리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며 쇠를 다루는 예술이다.

글 사진_안준관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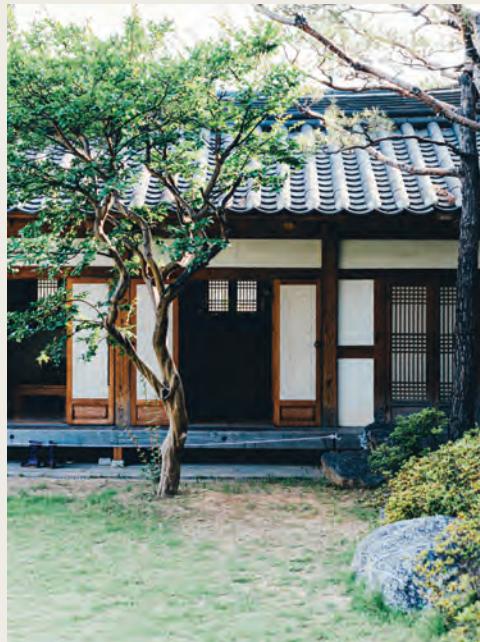




위민 인 레드

그림자마저 환한 집을 가지고 있다. 사실 고층 아파트에 살지만 마음이 자주 머무는 집은 빛이 정답게 들고 거대한 나무 그림자조차 오묘한 청보라로 살아 움직이는 이 초가집이다. 나는 자주 우리 집 식탁 앞 벽에 걸린 그림 앞에 선다. 오지호 화백의 「남향집」이다. 돌담 앞에 하얀 개가 해바라기를 하고 나목은 다가올 새봄을 향해 숨을 고른다. 쪽문을 열고 나무와 그 그림자 사이에 서서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가끔 내가 그 자리에 선다. 여름엔 그늘 차양, 겨울엔 햇살 샤워에 세상 부러울 것 없다. 남향집이니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한국근대회화 100선전’을 할 때였다. 한 그림 앞에 멈춰섰다. 독특한 구도이기도 하지만 붓 터치의 대담한 호흡이 예사롭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세상의 기운이 인상파 화풍의 25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림 하나



에 모여있는 것 같아 물집 잡힌 발꿈치가 아픈 것도 잊었다. 아들아이를 데리고 명의를 찾아 정기적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오갈 때였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못 찾아 춥고 습한 동굴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시기였다. 그림 속 여성은 눈물 그렁한 나를 빤히 보았다. 나는 그 순간 문설주를 잡고 선 빨간 옷의 여성이 마치 나를 그린 것만 같았다. 포스터를 구입하고 액자까지 맞춰와서 우리 집의 중심에 걸었다.

그림에서 빛이 난다. 분명 화가가 보았던 풍경은 세상의 빛이 집을 비추는 것일 텐데 내가 생각하건대 빛은 그림에서 내게로 뿐어져 나온다. 저 평화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무에서 답을 찾은 듯하였다. 파랑과 보라가 어우러진 우람한 나무 그림자는 집을 싸안는다. 마치 뿌리에서 나온 듯 땅을 쓰다듬고 벽을 기어올라 초가지붕을 지나 하늘까지 길을 내었다. 용마루에 올라서면 파란 하늘의 귀를 잡고 속닥거릴 수 있을 것 같은 저 신비한 그림자는 어서 오르라며 내 앞에 몸을 늘어뜨린다. 마치 동화의 주인공에게 덩굴손을 건네는 재크의 콩나무처럼.

내민 손을 잡는다.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린다. 이모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나까지 돌보셨던 외할머니는 그 분주함 속에서도 큰소리 내는 법이 없으셨다. 그런 외할머니가 쟁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다. 깊은 눈빛으로 나를 보던 누령소도 없다. 쇠죽을 끓이던 아궁이도 사라지고, 때로 멍석 위에 잔칫상이 차려지던 마당은 주차장과 화려한 꽃밭으로 변했다. 그래도 대문 앞에 서면 차례로 다가드는 것은 축담과 창호지 격자문, 무쇠솥, 늙은 감나무와 봉송아, 그리고 장독간이다. 빼꼼 열린 나무 대문 사이로 마당을 지나 빼떼기가 널리거나 베틀이 자리 잡은 넓은 마루를 본다. 따스한 햇살에 안긴 그 시골집이 나를 반길 때 나는 그냥 좀 오래 서서 그 상상을 즐긴다.

한여름 짱한 햇살이 쳐마에 걸릴 때 남향집은 잔잔한 그림자 차양을 펼친다. 내리꽂히는 햇살을 막아주는 아늑한 음영을 오지호가 그린다면 무슨 색을 쓰려나. 겨울에 비스듬한 햇살을 집 안까지 깊이 들여놓으면 외투를 입지 않고도 쪽문을 열고 찬찬히 세상을 내다 볼 수 있다. 「남향집」의 넉넉한 품에 안긴 지 이십 년이 가까워진다. 빨간 옷을 입은 인물은 언제든 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초대하면 나의 차탁에 나오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집을 보여주었다. 메마른 겨울 초입의 풍경이지만 대추나무에 잎이 무성한 여름, 열매가 들어진 가을, 연둣물 오르는 봄 풍경까지도 다 보여주었다.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되어주고, 친구가 그리울 땐 친구로 다가오고, 갈등에 지

칠 때는 품 넓은 상담사였던 그이는 때로는 아예 내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오지호는 모질고 힘든 세월을 살았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통한의 시기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를 견뎌내며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방황했다. 「남향집」은 황해도 개성의 송도고 보에 재직할 때 그린 것으로 한국적 인상주의를 표방한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해가 죽어버린 나라지만 숨죽인 자연과 일상의 토속성을 살리고 찬란한 빛으로 감싸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그림자에서 밝은 빛을 보고, 빛의 에너지를 그렸다. 널찍한 돌 축대와 편히 엎드린 풍산개를 두터운 흰색이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 사상과 정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자신의 예술세계를 보존했으나 외로운 길이었다. 광복과 전쟁 등 혼란이 중첩된 역사의 격동기였고, 그 혐악한 소용돌이 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으니. 하루를 돌아볼 시간, 그림 앞에 앉았다. 전등 빛이 오늘은 좀 무거운 것일까. 조곤조곤 고자질하면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림 속 여자가 진지해진다.

유심히 본다. 가슴을 붉은 온정으로 채우고 쉼 없이 그 실태래를 풀어낸 사람, 외할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시골이지만 장터 근처 집인지라 오일장이면 손님이 종일 들락거렸다. 친척분들은 달걀이나 생선 꿀미, 작은 곡식 자루 같은 것을 건넸는데 가끔은 담배나 박하사탕 봉지도 들려있었다. 할머니는 술상이나 밥상을 계속 차려내셨다. 집은 안부와 대화들로 채워지고, 그분들의 덕담에 힘입어 이모들과 나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바가지를 든 걸 객도 가끔 소반에 불러 앉히고, 바랑을 맨 스님도 그냥 보내지 않았던 외할머니의 마님다운 낙낙함 덕분에 입안의 박하사탕이 더 달지 않았을까. 엄마는 잠을 줄여가며 텔실로 외할머니의 빨간 스웨터를 짜셨지. 「남향집」을 보면 그림의 가운데서 내게 손짓하는 빨간 스웨터를 입은 외할머니가 보인다.

오랫동안 단독주택을 꿈꾸었지만 이루지 못하였다. 아파트에 살지만 사람 모이고, 찾아오는 것이 좋았다. 허물없이 집을 찾아드는 만남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외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자라서가 아닐까. 내 집, 네 집 가리지 않던 어릴 적 추억이 한몫하지 싶은데 지금도 올 사람만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좋다. 주택이라면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이방 저방 따뜻한 기운이 어리고, 중간 마루에 나와 채소도 가지고, 쉴 때는 각자의 방에 햇빛을 넘치도록 들여놓고, 대추나무 밑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행여 들여다보는 이 있으면 들어오게 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보리쌀도 안겨주고…



동백기름을 발라 머리를 쪽진 외할머니가 대문을 열어놓고 남쪽으로 마음을 트고 사셨던 남향집의 추억으로 구겨진 마음을 다린다.

고독해지는 저녁에 그림을 들여다본다. 흐린 현실을 딛고 오지호가 그림에 남긴 것은 자신의 이상향이었나. 좀 누추하면 어떤가. 정이 최고의 인테리어가 되던 그때 그 평펴짐한 남향 초가에 외할머니가 계셨다. 너와 나 허물없이 들여다보며 살았던 그 시절이 「남향집」 속에 보인다. 빨간 옷 입은 여자와 마음이 헛헛한 초로의 아줌마가 나누는 차담이 길어진다. 햇살 가득한 남향집이 내가 아는 지구별 전체였으면 좋겠다.

글_송명화 수필가

부산젊은예술가상 수상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 독일 칼스루헤 국립음대 Diplom 졸업
-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Master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Meisterklasse) 졸업
- 독일 자브뤼켄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 (Kammermusik Konzertexamen) 졸업
- 이탈리아 Di Musica Euterpe in Corato 국제콩쿨 1위
- 독일 Badische Philharmonie Pforzheim 부수석 역임
- 현) 부산예중·예고 출강, 부산교육대학교 외래교수, 부산CBS교향악단 악장, EternaEnsemble 리더, MoaClazz리더



부산의 젊은 음악가들 가운데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가 지난 10월 28일 열린 부산예술상 시상식에서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섬세한 감성과 탄탄한 테크닉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클래식 도시 부산을 이끌어갈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예술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칼스루헤 국립음대와 자브뤼肯 국립음대 마스터 과정을 마친 그는 현재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부산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Q. 올해 부산예술상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

사실 부산에는 훌륭한 젊은 예술가분들이 많다. 그 가운데 조금 일찍 눈에 띠어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술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부산의 예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

Q. 부산예술중학교와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석·박사과정까지 마치며 예술가로서 탄탄한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지 궁금하다.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당시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과 중심의 단기적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며 공부했던 것 같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음악가들은 음악을 즐기며 연주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토록 스트레스 속에서 불행하게 음악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그때는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즈음에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 과정에는 때로 고통과 수많은 고민이 뒤따른다’라는 앤서니 웰링턴Anthony wellington의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나만 힘들고 좌절을 겪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지금은 음악을 경쟁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나누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Q.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이탈리아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어리게 보인, 한국으로 치면 대학 입시를 앞둔 나이의 외국 친구가 있었다. 콩쿠르 준비 기간 중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앞으로 뭐 할 거야?”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악기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라며 해맑게 웃었다. 연주 실력도 뛰어난 친구였기에, 그때까지 음악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 없던 내게 그 한마디가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음악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이 연주를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음악을 대할 수 있었다.

Q. 많은 사람이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느낀다. 클래식을 더욱 친근하게 즐길 방법이나 감상 팁이 있다면.

클래식 음악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모든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며 감상하기란 쉽지 않다. 현대 대중음악에 비해 다소 접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클래식 음악을 보다 잘 알고 즐기고 싶다면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함께 경험해 보길 추천한다. 클래식 음악은 수많은 시대와 역사를 함께 겪쳐 온 예술이기에 이러한 경험이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예술가가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공연을 이어가고 있어 그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는다.

Q.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음악가나 인생곡이 있다면 무엇인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흐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학창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골드 베르크 변주곡은 인생곡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피아니

스트가 약 80분 동안 쉬지 않고 연주해야 하는 대곡인데, 들을 때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아직도 좋아한다.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감상해 보길 추천한다.

Q.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이 시대 클래식 음악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업을 위해 유럽에 머무는 동안 여러 도시를 방문했지만, 부산만큼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곳은 드물다고 느꼈다. 이미 많은 예술가 선배님과 동료들이 그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개선’이라기보다 부산에 깊은 문화적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시대가 달라졌을 뿐, 자신의 정체성과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수 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 음악 역시 대중음악의 한 장르라고 믿는다. “새로운 것은 환영받고, 오래된 것은 사랑받는다”는 말처럼, 클래식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 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Q.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떨 것 같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비전도 이야기해 달라.

20년 후, 2025년의 지금을 떠올리고 있을 것 같다. 아마도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될 테고, 그때 또다시 바흐의 골드 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의 발걸음이 잠시 멈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길 바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진행 정리_정혜주

제8회 작강연극제 대상

연출가 이승환

- 2018 부산연극제 [극단 시나위] <뿔> 아들 역할 출연
- 2019 부산연극제 [극단 시나위] <귀가> 음악감독 및 멀티역 출연
- 2020 [극단 이야기] <착한아이들> 선생님·학생 역할 출연
- 2021 [현미밴드] 렉처콘서트 음악가·강연가 출연
- 2023 [극단 시나위] <아빠는 순찰 중> 아빠 역할 출연
- 2025 작강연극제 <아빠는 순찰 중> 연출(대상)
- 울림교육컨설팅 대표 / 프로젝트그룹 [울림] 운영



연극을 시작한 지 10여 년, 전공과는 다른 길에서 우연히 연극을 만난 이승환은 이제 배우·음악감독·연출가로 활동하며 부산 연극계에서 자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연극배우와의 단순한 인연으로 처음 무대 뒤 음향을 맡았던 그는, 꾸준한 무대 경험 끝에 올해 제8회 작강연극제에서 첫 연출작 <아빠는 순찰 중>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우연으로 시작된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이제는 부산이 주목해야 할 신예 연출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울림’의 힘

이승환의 연극 인생은 화려한 출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전공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자신의 길이 법조계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다. 청년 시절 폐기만으로 시작한 사업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 표현하듯 ‘바닥’을 경험했다. 그런 시기를 벼티게 한 것은 우연히 보게 된 한 편의 강연이었다. 그 영상이 전한 단단한 위로와 ‘울림’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훗날 교육회사 [울림교육컨설팅], 그리고 연극단체 프로젝트그룹 [울림]의 이름이 되었다. 그에게 ‘울림’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에너지이자 예술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가치이다. 그는 “마음속의 울림이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며, 본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울림이야 말로 관객에게 전네고자 하는 메시지라 전했다.

우연이 만들어준 연극과의 인연

이승환의 연극 입문은 계획된 선택이 아니라, 우연들이 이어 붙인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음악적 감각이 뛰어났다. 머릿속에서 즉흥적으로 악보를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작곡 능력이 있었고, 취미 삼아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즐기곤 했다.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병행하던 어느 날, 우연한 인연으로 故 박현 배우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바냐 아저씨>의 음향을 맡으면서 처음 연극과 마주했다. “단순히 베튼만 조작하면 된다”는 말에 선뜻 수락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의 미세한 감정 변화에 맞춰 손끝 하나까지 조정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연극이 가진 감정의 깊이를 처음 체감하게 되었다. <바냐 아저씨>에 출연했던 배우 김혜정과의 인연은 그를 자연스럽게 [극 연구집단 시나위]로 이끌었다. 이후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점차 자신만의 색을 찾아갔고, 지금은 독립하여 프로젝트그룹 [울림]을 이끄는 위치에 섰다. 그의 연극 인생은 언제나 ‘인연’이 만든 길이었다.

돌이켜보면 이 길은 이미 오래전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울림’의 순간을 떠올리다 보니, 아홉 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전했다. 학교 무대에 서기 위해 종이 왕관을 직접 만들어 쓰고, 종이를 이어 붙인 스테이플러에 이마가 베여 피가 나는데도 신나게 연기를 이어가던 어린 자신. 그 기억

이 그를 다시 무대로 불러낸 것이다. 전공도, 경력도 모두 연극과 무관했기에 한때는 강사와 회사 운영에 집중하며 ‘연극을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여겼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우연들이 그를 다시 연극 무대로 이끌었다.

무대 위와 아래 모두를 아우르다

처음 배우로 무대에 선 작품은 극연구집단 시나위의 〈뿔〉이었다.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연습 과정에서 그는 ‘연극은 분량이 아니라 태도’라는 본질을 온몸으로 배웠다. 이 깨달음은 지금까지도 작업 전반을 이끄는 준칙이 되었다. 연극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 가능했던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특유의 날것과 같은 연기를 무기 삼아 배우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무대 아래(음악연출)로 시선을 넓히기 시작했다. 교육회사 운영과 연극을 병행하는 생활 속에서 다른 배우들처럼 하루를 온전히 작품에 바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남들보다 짧은 몰입 시간은 늘 마음 한 구석에 미안함으로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 공연에서 찾아왔다. 감기에 걸린 채 공연 4일 중 2일을 기침하며 벼텨내야 했고, 그 일로 연극 생활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출가에게 진심 어린 질책을 들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배우의 역할은 무대 위 몇 시간이 아니라, 일상까지 포함한 ‘24시간의 태도’가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다른 배우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는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잠시 배우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아빠는 순찰 중〉의 연출을 맡기로 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배우로 참여했던 작품이기에 ‘내가 연출한다면 더 깊게 표현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에서 연출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다. 준비 과정 내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불안과 확신이 뒤섞인 시간을 거쳤지만, 그는 배우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 공백

을 하나씩 채워나갔다. “연출가는 정답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가 이 무대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의 연출 방식은 지시보다는 ‘열린 구조’에 가깝다.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그것을 배우들이 직접 실험해보고, 그중 살아남는 장면만을 조합해 내는 방식. 다시 말해, 이승환의 연출은 누군가를 끌고 가는 힘보다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만드는 ‘조율’의 힘에서 비롯된다.

NG 아닌 ING뿐인 인생

“내 인생에 NG는 없다. ING뿐이다.”

이승환이 강연에서 자주 전하는 이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자, 지금의 자신을 만든 문장이다. 그는 좌절과 실패의 시간을 지나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얻은 ‘울림’을 강연과 연기, 그리고 연출이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타인에게 전하고 있다. 첫 연출작으로 거머쥔 작강연극제 대상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그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삶이란 결국 수많은 NG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ING이다. 이승환은 그 믿음으로 인생이라는 희극을 연출하며 써 내려가고 있다. 그의 울림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작은 조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글 사진_박준영



자연의
근원적 원리 속
상징적
전면추상 全面抽象

범전 梵田

서재만 화백

- 개인전 및 단체전(국제전 포함) 162회
- 부산시립대학 미술 학사 졸업
- 교직(1957-1999)- 거창여고 포함 10곳
- 부산미술대전 금상 수상
- 교육유공장 표창, 국민교육현장선포기념 표창
-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부산예총 감사,
-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장, ECO 국제환경예술제 자문위원

Untitled, 24x33cm, Oil on canvas, 2017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미술 사조는 시대 간 무수한 변화 속에 발전과 수용이 교차하며 정립화 됐다. 특별히, 구상具象과 추상抽象은 동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며 미학적 탐구는 끝이 없는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화단에서 재현되기 시작한 추상계열은 구상에서 출발하며, 점차 조형적 심화와 확대를 통해 비구상적 형상으로 변화를 이어간다. 구성주의構成主義¹⁾에 기반한 여러 표현적 추상의 태동과 변화 흐름 속에서 범전^{梵田} 서재만 화백은 이러한 사조를 재해석하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로 변형시켰다. 그는 표현의 변화를 거듭하며 현재까지도 작품 세계를 확장해 온 부산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세계관을 ‘자연’과 ‘상징’의 개념으로 연결해 전면추상全面抽象으로 시각화했다. 그의 작품은 미니멀리즘과 순수 조형의 미학 속에서 다각적인 형상 구조를 드러내며, 자연 속 무형의 형태를 상징화하거나 반복적으로 표면에 표현하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장르를 떠나 끊임없이 추상 이후의 새로운 도달점에 대해 고민했던 그의 삶의 행적과 미술 세계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한다.

자연에 대한 동경과 필연적 모티브

태초의 자연을 비롯한 모든 아름다움을 시각화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의 중요한 과업이었다. 현대미술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그러한 태도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작가들은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로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다. 자연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작가의 가장 근원적 관심사는 자연물이 지닌 원초적 형태와 아름다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생명의 신비로움일 것이다. 수많은 현상 가운데서도 ‘바다’와 ‘빛’은 그 형태의 변화무쌍함과 동시에 색채는 단연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점을 비유적으로 대변해 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각적 형상과 관념을 담고 있어서 였을까. 서 화백은 유년의 고향과 맞닿아 있는 기억의 골을



이와 연계하여 작품에 시각화하고 표현에 깊이를 더했다. 작가의 기억 내면, 눈을 뜨면 언제나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만나던 시절과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현재의 작품에 표현하려 했을지 궁금한 일이다. 사실에 기초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그 마음의 풍경을 세밀하게 다듬는 일은 작가 자신의 심상을 다듬는 성찰적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서재만은 1933년 경남 함양 인당리에서 태어났다. 자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지닌 그는 부산사범대학 졸업 후 여러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며 창작 활동을 병행했다. 1973년 부산의 실험 미술 단체 미술동인 [혁]에 합류해 강선보, 김홍석, 혜황 등과 함께 부산 현대미술의 흐름을 넓혀갔고, 이후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장과 부산창작미술협회 회장을 맡으며 지역 추상미술을 이끄는 중심 작가로 부



묻혔습니다, 333×197cm, Oil on canvas, 2005



Overlap-08, 90×60cm, Oil on canvas, 2009

상한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법칙과 현상을 근원으로 삼아 유기적 형태로 표현한 추상미술이 특징이다. ‘바다’와 ‘빛’을 상징적으로 다룬 초기 추상에서 출발해 특정 형태를 패턴화하는 전면추상으로 확장되었으며, ‘묻혔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기하학적 질서를 구축한 작업도 다수 남겼다. 1960년대 이후 구상 중심의 부산 미술계에 새로운 현대미술적 방법론을 도입했고, 자연에서 비롯된 이미지와 상상력, 실험을 토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조형 세계에 도전했다.

1979년 6월 10일 뜻은날을 숙도 야외스케치를 나갔다. 채색하는 순간 빗방울이 간간이 떨어져 내렸다. 그러자 채색된 화폭의 바닥 색이 떨어진 빗방울에 의해 길거나 둥글게 조작되었다. (중략) 아..., 이 비는 분명 우연의 개입이었다. 떨어진 빗방울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점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1926년 블록클린 미술관에 초대된 마르셀 뒤샹은 자신의 우연은 모든 사람의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략) 이로써 나는 느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우연의 개입’으로 나의 작품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작가노트 中

만물의 유기적 형태 속 파랑^{波浪}²⁾의 무형적 풍경

자연의 근원적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형상과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재현적 작업에 관심을 가진 그는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관조했을까? 위의 작가노트에서도 언급했듯 이 시간 속 ‘우연’에 의한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에 근거해 만유에 존재하는 미시적 형태는 본디 자연에서 파생되고, 이를 본인만의 철학과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에 나타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는 언제나 자연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순간의 감정을 온전히 작품에 담아내는데, 그런 영향인지 색채는 비현실적이다.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파랑78’은 이와 같은 작가의 예술적 의미가 잘 드러나는 전면추상 작품으로, 파도의 비정형적 물결을 화면 전체에 확산시킨다. 세밀한 곡선으로 이어진 파도의 원형 궤도는 크기와 형태의 변주를 통해 풍랑·너울·쇄파를 표현하고, 흰 물감으로 거품을, 먹의 농담으로 수심의 깊이를 나타냈다. 한 화면 안에서 선·크기·명암의 변화만으로 유기성, 움직임, 운동성을 구현한 대표작이다. 안료 사용에서도 동·서양화 재료를 혼합해 표현의 폭을 넓혔으며, 자연물을 단순화·기호화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장르의 경계를 확장했다. 또한 ‘무척산의 환영’에선 점묘와 양각을 결합해 독특한 질감과 유기적 형태를 동시에 전달하는 공감각적 작업도 주목할 만하다.

서 화백의 작품 세계는 추상미술을 기반으로 시기별 변화가 뚜렷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과도

반응, 53.0×45.5cm, Oil on canvas, 2006



기로, 미니멀리즘과 오브제 미술을 실험하던 시기다. 1960년대에는 자연물을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실험미술이 시도되며 사물은 더욱 단순화된 조형으로 변화했다. 특히, 화면에 점을 찍고 불로 그을린 행위와 '모노크롬'의 영향에 의한 선과 면의 단순화, 물성의 특징을 이용한 시공간 융합 퍼포먼스는 당대 현대미술 경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시기 그의 실험과 연구는 새로운 조형 언어와 예술의 본질을 탐구한 것으로, 정체되어 있던 당시 부산 미술계에 변화를 이끈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어 1980~2000년대에는 작업 개념이 더욱 견고해지며 표현 방식이 다층적으로 확장된다. 자연의 '파랑'에서 착안한 작품들은 미세한 입자의 '마띠에르'를 활용해 시점을 분산시키고, 점·선·면의 조형 요소로 파도의 깊고 푸른 심연을 색면추상으로 구현했다. 이는 실험을 넘어 안정된 조형 단계로 접어든 시기로, 화면 구성의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통일감과 정제된 분위기를 유지했다. 2000년대 이후 2025년까지는 교직을 마치고 김해에 정착한 시기로, 그동안의 경험과 감각을 종합해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오버랩'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자연·예술의 관계를 독자적 조형관으로 구체화하며, 이를 「묻혔습니다」 시리즈로 정리했다. 화면에는 원형적 형태가 나타나 생성의 질서와 자연의 균원을 비정형적 추상으로 표현하며, 차갑고도 뜨거운 원초적 풍경을 드러낸다.

고요한 열정 속 닳은 푸른 평화

1999년도 경남 김해에 본인의 이름을 붙인 '서재만 갤러리'를 개관하고, 작업에 매진하며 무척산행을 즐겼던 만년의 작가는 올해로 93세에 인생의 후반기를 지나고 있다. 그는 본인의 작품처럼 자연 속 파랑과 파장을 거친 무수한 층들의 겹침, 실험과 창작의 고뇌의 시간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되돌아볼 것인가. 서 화백은 몇 년 전부터 건강 이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아흔을 앞두고 평면 1호 작품부터

100점까지 창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60여 점을 완성한 시점부터 알츠하이머가 악화하며 작품 활동을 멈추었다. 최근 그의 뜻을 잊기 위해 아들과 주변 작가들이 힘을 모아 회고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화백의 70년 예술 여정을 기리고, 부산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로, 1970~80년대의 미니멀한 순수 추상 작품 60여 점과 최근 작업을 '묻혔습니다'라는 주제로 선보였다. 전시는 고요한 바다의 물결 같은 평화로운 정서가 작품 전반에 스며 있다. 예술이 과학기술과 매체의 흥수 속에서 정체된 듯한 오늘, 서 화백의 예술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순수조형 언어를 향한 탐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시사점을 남긴다.

글_백근영

사진 출처_서재만회고전(2025. 10. 금련산역갤러리 도록)

1 1910년대에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 전위적 미술 운동으로, 러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주로 재현적 요소를 거부하고 순수 형태의 구성을 강조하는 기하학적 추상미술 경향으로 나타나며 데스틸, 바우하우스에 큰 영향을 끼쳤다.

2 파랑(波浪)은 크고 작은 물결, 즉 파도를 의미하는 한자어로, 일상적으로는 바다나 강 등에서 일어나는 물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3 단일한 색조에 명도와 채도의 변화만 있는 추상 회화의 한 종류이다. 매체의 순수성, 평면성, 환원성을 지향한 1960~1970년대 미국의 모더니스트 회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평론가 이일(李逸)이 1970년대 등장한 단색조의 평면 추상 회화(단색화)에 모노크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손으로 쓴 문학

No. 47

별똥별

문영길

이별 젖은 세상에서)

마침표 끊던 별똥별

사랑했던 까닭 하나쯤

지워졌다 해도

보간듯 반짝거리는

빠곡, 총총한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작가노트 | 사랑이 별똥별처럼 사라진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랑의 이유를 불 밝혀두기에 내일이 새롭습니다.

글_문영길 (사)부산문인협회 사무처장, 시인

RE: VIEW

- | | |
|-----------|-------------------------------------------------|
| 음악 | 제63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_ 김윤선 |
| 문화 | 제21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송대 흑유다완의 세계 _ 김윤화 |
| 연극 | 벽장 속의 아버지와 딸이 만들어 내는 공동 서사의 삶
〈아버지와 살면〉_ 김영희 |

제63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지난 11월 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제63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이 열렸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가 주최하고 (사)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가 주관한 이번 공연은 부산예술제의 가장 화려한 무대로 63회에 이르는 긴 역사 동안 부산의 무수한 연주자들이 거쳐 간 전통 깊은 무대다. 올해 제63회 부산예술제는 'Next Wave: 부산,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부산예술제 산하 각 협회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역에서 역동적으로 활동 중인 신진 성악가들과 중견 성악가들이 함께 열정 넘치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부산음악협회가 부산의 우수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교육하여 전문 연주자로 육성해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계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2020년 창단한 [부산청년오케스트라]가 정병 희의 지휘로 연주를 맡아 음악으로 세대를 아우르고 미래 세대와의 공감을 잇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날 공연은 낭만주의 시대의 정서를 반영한 레퍼토리가 주를 이루었다. 프랑스의 서정적 비극 오페라부터 이탈리아의 벨칸토 오페라, 이탈리아의 비극적 오페라 등 감정선이 긁은 오페라 아리아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전형적인 가을의 정서를 느끼기에도 좋았다.

소프라노 양효정은 신인 성악가로 김소월 시·김성태 곡 「산유화」를 한국화의 여백 미를 담아 부른 후, 샤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L'air des bijoux from C.Gounod Opera "Faust"를 순박한 시골 처녀의 억눌렸던 사랑과 세속적인 욕망에 눈뜨는 심리적 변화를 묘사했다.

테너 김희수가 석호 작사·조두남 작곡의 「뱃노래」를 신명 나게 부른 후, 분위기를 전환하여 월마스네 오페라 〈베르테르〉 중 「어찌하여 나를 깨우는가」Pourquoi me réveiller from Jules Émile Frédéric Massenet Opera "Werther"를 프랑스의 감성과 비운의 감정을 깊이 있게 보여줬다.

소프라노 윤비연은 이수인의 서정가곡 「내 맘의 강물」과 안톤 드보르자크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 from Anton. Dvořák Opera "Rusalka"로 낭만주의 전형인 신화가 지닌 슬픈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극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함께 신비한 정서를 전했다.

이어 소프라노 권소라가 고정희 작사·이원주 곡 「배틀 노래」로 애끓는 애환과 희생을 담은 여인의 삶을 노래한 후,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보석 같은 작품인 빈첸초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중 「그대의 달콤한 목소리」Qui la voce sua soave from Vincenzo Bellini Opera "Puritani" 일명 '광란의 아리아'를



화려한 콜로라투라 기교를 통해 절망의 광기와 희망을 유연하고 정교하게 빛나는 목소리로 불러 주었다.

바리톤 윤풍원이 부른 신흥철 시·신동수 곡 「산아」는 1983년 MBC 대학가곡제 대상 수상 곡으로, 한국전쟁 때 고향을 두고 온 아버지의 그리움을 표현한 시에 아들인 신동수가 곡을 붙였다. 웅장하지만 비통한 심경에 바리톤 저음의 중후함이 잘 들어맞았다. 이어서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중 「일어나라 너야말로 영혼을 더럽힌 자

Alzati ...eri tu.. from Giuseppe Verdi from Opera "Un Ballo in Maschera"」는 베르디 특유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내면의 갈등과 불타는 복수심이 잘 표출된 명 아리아였다.

소프라노 변향숙이 천여 년 전 설도의 애듯한 사랑의 심경을 김성태 곡 「동심초」에 담아주었고,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느 개인 날 Un Bel Di Vedremo from Giacomo Puccini Opera "Madama Butterfly"」을 간절한 기다림 속에 순수한 희망이 담긴 여자의 마음을 극대화하여 불러 감동적이었다.

마지막 무대에 테너 전병호가 부른 김영호 시·박지훈 곡 「내 가슴엔 바다가 있다」는 부산 출신 성악가로 전국을 무대로 날개를 펼치는 전병호에게 항상 그리운 바다를 가슴에 품은 강한 시적 메시지를 전한 후, 아구스틴 라라 Agustín Lara의 「그라나다」로 드라마틱한 이국적 정열을 쏟아냈다. 공연의 피날레는 전 출연진이 함께 부른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으로 차마 객석을 떠나지 못하는 관객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막을 내렸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우리 성악가들을 통해 듣는 수십년 동안 사랑받아 온 한국 가곡과 단 한 곡의 아리아로도 오페라의 전막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 명 아리아들을 친절한 해설과 함께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갔다. 반세기를 훌쩍 넘는 전통을 이어 오는 동안 많은 음악가들이 이 자리에 빛나게 해주었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 간 공감을 유수히 흘러왔다. 선배음악가들이 잘 지켜온 이 무대가 다음 세대에게 새 물결이 되어 아름답고 용성한 예술로 소중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제21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송대 흑유다완의 세계

글_김윤화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과정

2025년 11월 7일, 21년 동안 부산의 대표적인 차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가 개막했다. 매년 열리는 문화제이지만 항상 다른 콘텐츠를 기획해 부산 시민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데 이바지했다. 근래에는 영어 통역을 지원, 외국인까지 대거 참여해 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고 흥미를 돋게 하면서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올해 개막전시에서는 중국 송나라(宋, 960-1279)에 사용되었던 검은색 찻사발인 흑유다완_{黑釉茶碗}을 총망라해 당시 번영했던 차문화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흑유다완이 생산되었던 21개의 가마에서 출토된 진귀한 진품 유물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규모의 전시였다.

송대에 이르러 차_茶는 이전의 단순한 기호식품 혹은 약재를 넘어 예술과 풍류를 아우르는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찻잎을 가공해 떡처럼 만든 연고차_{研膏茶}를 활용한 점다법_{點茶法}이 정립되면서 차의 맛도 개선되었지만, 흰 거품을 낸 가루차_(말차)와 이를 더 돋보이게 하는 흑유다완의 대비는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시각적, 미학적 경험으로 승화시켰다. 이전 시대보다 개인의 개성과 아취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자신이 고른 흑유다완과 격불로 만든 거품의 아름다움을 대결하는 투다_{鬪茶} 대회나 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차백희_{茶百戲}와 같은 놀이도 성행하기 시작했다. 차의 역사상 가장 예술적이었던 차문화가 향유되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흑유다완은 북송 휘종_(徽宗, 1100-1126)대에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남송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복건성_{福建省} 무이산_{武夷山} 인근의 가장 대표적인 흑유다완 가마인 건요_{建窯}를 비롯해 강서성 길주요_{吉州窯} 등 중국 각지의 가마에서 활발히 제작되었다. 흑유다완은 흔히 ‘천목다완_{天目茶碗}’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흑유다완을 칭하는 단어이다. 일본에서 복건성 천목산_{天目山}으로 유학하였던 선승들이 당시 사용하던 흑유다완을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가면서 천목다완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송대가 끝나면 가루차가 사라지지만 일본에서는 근래까지도 가루차 문화가 성행했다. 한국에서는 송나라와 동시대인 고려시대 때 가루차를 음용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문화가 끝나면서 근래에서야 가루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이를 중국이 아닌 일본을 통해 수용했기에 흑유다완도 천목다완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복건성의 건요는 가장 대표적이고 고급의 흑유다완을 만들었던 곳이다. 복건성에는 황실에 공납하던 차를 생산하는 어다원_{御茶園}이 있을 정도로 차의 명산지였으며, 선승들 외에도 주희_{朱熹}가 서원을 설립하는 등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차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정립된 시기가 중국에 선종 불교가 도래한 이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복건성이야말로 송대 차문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지역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가졌던 건요 흑유다완의 위상은 현재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



은 안료銀彩로 문양을 그린 건요 흑유다완과 칠기잔탁



종이를 문양대로 오린 뒤 기물에 올리고 굽는 전지루화剪紙漏花 기법의 길주요 흑유다완

다. 건요의 영향을 받은 흑유다완들도 생겨났으며 복건성의 민강閩江을 따라 건요계라는 큰 가마군郡을 형성하기도 한다. 건요계 가마는 지역 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대량 제작되었다. 이 외의 장락요와 같은 가마도 발견되지만, 이는 복건성 내 민간 수요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건요에 비견되는 흑유다완의 생산지인 길주요의 다완들은 특유의 화려함과 다채로움으로 명성을 떨쳤다. 건요를 비롯한 수많은 흑유다완 가마에서는 대부분 토흐兔毫(토끼털무늬)나 유적油滴(기름방울) 혹은 단조로운 무문無紋의 흑유다완을 생산했다. 송대는 개인의 고유성이 중시되었던 만큼, 흑유다완에도 개인의 안목이 반영되길 바랐다. 길주요는 도자기를 소성할 때 가마 속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생기는 임의의 효과들, 즉 요변窯變 현상을 적극 활용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구워내도 결코 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는 우연성과 유일성은 송대 차문화의 예술성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는 흑유다완이 단순한 음용기를 넘어,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예술적 표현의 장으로 확장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천성과 양자강 이북의 차문화는 어땠을까. 모두 복건성과 강서성과 거리도 멀지만, 지리적으로도 단절되어 있다. 이 지역의 차문화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다구 출토 현황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점다법을 향유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요대 벽화를 통해 요나라에서는 한족의 차

문화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외의 금나라나 원나라의 경우 전해지는 기록과 회화가 없기에 같은 차문화를 공유했는지 밝히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전해지는 기물들은 당시 음다문화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된다. 소량이라도 북방의 각 가마들, 심지어 정요나 여요와 같은 송대 명요名窯에서도 흑유로 된 기물이 생산된다는 점은 흑유가 복건성과 강서성 일대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시켜 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중국에서도 과거 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송대 점다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국에서 가루차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다. 한국에서도 가루차의 인기는 폭발적이지만 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시된 유물들의 컬렉터이자 전시를 기획한 김성태는 이번 전시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차의 역사를 알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차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책만 보고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전시는 송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거나 혹은 가마터에 버려져 있었던 유물 다구들을 소개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도 해보면서 우리가 현재 마시는 이 가루차 한 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벽장 속의 아버지와 딸이 만들어 내는 공동 서사의 삶

〈아버지와 살면〉

글_김영희 경성대 미래인재교양학부 교수, 연극평론가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면 어떨까. 방금 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이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그리고 그는 죽고, 나는 살아남는다면. 〈아버지와 살면〉(이노우에 히사시, 양재영 연출 2025.10.31.~11.2. 나다소극장)은 바로 그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다. 일본 작가 이노우에 히사시가 쓰고, 극단 [판풀]의 양재영이 연출을 맡았다.

작가 이노우에 히사시는 1934년생으로, 전쟁의 한가운데서 유년기를 보낸 세대다. 가난과 혼란의 시대를 통과하며 겪은 전쟁의 기억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당시 그의 나이는 열한 살. 원폭은 그의 어린 시절에 각인된 공포이자,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아버지와 살면〉은 바로 그 원폭을 배경으로 하면서, 홀로 살아남은 딸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한 원폭 피해자의 서사나 반전^{反戰}극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재'와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속에서 불완전한 일상을 견디는 평범한 인간의 삶을 담담히 응시한다. 작가는 유년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살아남음의 고통'을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려내는 것이다.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자. 아버지와 딸은 1945년 8월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다 번쩍이는 섬광을 목격한다. 그것은 바로 그들 머리 위 500미터 상공에서 폭발한 원자폭탄이었다. 그 순간 딸은 친구의 편지를 줍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그대로 폭심지의 빛을 맞

으며 즉사한다. 찰나의 순간, 숙인 고개 하나가 생과 사를 갈라놓았다. 딸은 우연히 목숨을 건졌지만, 남은 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 육체의 상처보다 깊은 것은 '살아남음'이라는 상처였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지만, '살아 있는 자로서 행복해져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금기에 갇혀 사랑을 거부한다.

연극에서 무대는 물리적인 구조물을 벗어나서 인물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무대는 딸의 심리를 섬세하게 반영한다. 벽장, 다다미방, 앉은뱅이책상, 불단, 그리고 부엌과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세밀한 공간 구성은 일상의 리듬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한편 살림 도구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놓인 정갈한 무대는 욕망을 거부한 딸의 내면을 역설적으로 상징하기도 한다. 무대에 공을 들인 연출의 감각이 돋보인다.

이제 연극의 첫 장면을 보자. 연극의 첫 장면은 관객이 작품 세계에 진입하는 문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살면〉의 첫 장면은 '번개가 치는 밤'이란 점에서 극적이다. 비 내리는 밤, 번개가 치는 순간 딸은 원폭 트라우마에 휩싸여 공포에 떤다. 그때 '드르륵' 벽장 문이 열리며 나타난 아버지는 벽장 속으로 딸을 숨긴다. 벽장 속은 번개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며 원폭의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는 장소이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녀를 품는다. 이후에도 딸이 찾아온 사랑을 거부할 때, 아버지는 연애 상담자로 등장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러나 벽장 속의 아버지는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딸이 기억 속에서 불러낸 환영이다. 혼자 살아남아 죄의식에 빠진 딸은 아버지가 죽었지만,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것이다. 벽장 속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향한 딸의 그리움이기도 하고 안식처이기도 하다. 어쩌면 누구나 자기 삶이 흔들릴 때, ‘드르륵’ 벽장문이 열리듯 누군가 우리를 품어 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이 작품이 비극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온기 어린 시선과 그의 언어 덕분이다. 극은 절망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비극의 한가운데서 웃음을 놓지 않는다. 웃음은 삶의 완충제이며, 절망 속에서도 인간을 베티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1994년 작가가 환갑을 맞던 해에 완성된 이 2인극은 고통의 이야기 속에서도 유머와 사회적 비판의식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이는 연륜이 주는 여유이자, 초기 희극작가로서의 감각이 살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재밌게, 재밌는 것을 진지하게, 진지한 것을 유쾌하게 그리고 유쾌한 것을 어디까지나 유쾌하게”라는 작가의 신념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다. <아버지와 살면>은 그래서 유쾌하고 따뜻하다.

결말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을 남긴다. 그 말은 딸이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끈다. 작가는 우회적으로 말한다. 살아남은 자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고. 산 자는 죽은 자의 뜻까지 살아야 하며, 그들이 살고 싶었던 내일을 맞은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게 살아내야 한다고. 그래서 살아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선물’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최선의 방식은 눈물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그들의 뜻까지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개인의 서사로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그들이 원하던 삶을 산 자가 살아내는 일, 그래서 삶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엮어가는 ‘공동의 서사’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수많은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살아남은 자의 삶’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에게 ‘살아 있는 이유’는 여전히 아프고 무겁다.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이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산 자의 사명이다. 멕시코 영화 <코코>에서처럼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기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죽은 이를 기억하는 행위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건축과 서예XVIII

한 시대의 건축미를 전각으로 완성한 예술가 운경 남정구

칼끝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현판예술

건축에서 '시작은 설계요, 완성은 상량문'이라 하지만, 한 건축물이 비로소 제 이름을 얻는 순간은 현판과 함께 찾아온다. 현판 역시 시작과 끝은 다르다. 현판의 시작은 서예가의 붓끝에서 비롯되지만, 건축물 출입구 위에 걸려 한 시대의 기억을 이어 나가는 현판의 완성은 전각가의 칼끝에서 마무리된다. 서예가는 건축물의 정신과 기능을 서너 글자의 필획 속에 응축한다. 그러나 그 필획을 목재 위에서 구조화하고, 건축물의 스케일·빛·거리감을 수용하여 조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각가의 몫이다. 글씨의 기운을 살리면서 입체·깊이·질감을 부여하여 서예와 건축을 매개하는 마지막 공정이 바로 현판 전각이다. 부산과 영남 지역의 사찰·서원, 읍성·의열각기념관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현판 뒤에는 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손"이 작동해 왔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운경(雲耕) 남정구(南廷九, 1922~1988)이다.



운여 김광업의 전각을 계승한 전각예술가

운경의 전각은 한국 전각사의 정통 계보 위에 자리한다. 그의 스승은 안과 의사이자 서예가·전각가였던 운여 雲如 김광업 金廣業(1906~1976)으로, 평양·부산·서울·미국을 오가며 서예와 전각을 전개한 인물이다. 운여는 위창 오세창을 사사하여 추사 김정희의 금석학·전각 정신을 이어받았고, 1955년 부산 최초의 서예학원인 동명서화원 東明書畫院을 개설하여 지역 서화계의 중심이 되었다.

운경은 공직 생활을 접고 30대 후반에 운여 문하에 들어서며 전각을 본격적으로 익혔다. 스승이 지어준 호 ‘운경 雲耕’은 운여의 ‘운 雲’자를 이으면서, ‘구름을 갈아 밭을 일꾼다’는 뜻을 품고 있다. 그의 서재에 남은 「각운상동 刻韻常動」(각의 울림이 늘 그치지 않는다) 네 글자는 늦깎이 제자로서, 각에 매진한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1964년, 마흔두 살에 부산시공보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1976년 대구 제11회 개인전까지, 그는 거의 해마다 전각·판각·입체 작업을 선보이며 자신의 조형 세계를 구축했다. 1976년 운경의 대구 개인전에서 미술평론가 석도륜이 운여의 타계를 애도하며 “어제는 운여옹을 여의었는데 오늘 대구에서 운경을 다시 만난다(昨日坐脫雲如翁 今日大丘再雲耕)”고 적은 방명록은, 운여-운경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그 예술적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전통 전각 영역을 탈피하여 오브제, 입체예술의 영역을 넘나드는 전각 작품을 선보였던 제4회 서울 개인전(1968년)에서는 우리나라 1세대 현대건축가 김중업이 ‘남 선생은 오로지 판각을 전문으로 각고 刻苦의 10여 년에 그 구도의 자유로운 변화와 유창한 철봉의 예리한 도흔 刀痕은 기성대가의 영역에 도달하였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부산·영남 현판의 표준을 만들다

운경의 전각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단연 현판이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전국의 주요 사찰·서원·충렬사·충의사·관공서의 현판을 도맡으며, 사실상 영남 현판의 표준을 만들어냈다.

1972년 경주 불국사 〈무설전無說殿〉 〈비로전毘盧殿〉 〈안양문 安養門〉 편액을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73년에는 정화사암 이전의 부산 충렬사·안락서원의 본당인 〈충렬사 忠烈祠〉 편액을 제작하였고, 1975년 경주 시내 법장사 法藏寺 〈대웅전 大雄殿〉 편액과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인근 경로당 〈금오당 金烏堂〉 및 영남 대학교 민속촌 내 〈의인정사 宜仁精舍〉 편액을 제작하였다. 1978년 당시 대통령이 참관하는 행사로 부산 충렬사의 〈충렬사 忠烈祠〉 〈소줄당 昭翠堂〉 〈의열각 義烈閣〉 등 편액 9점을 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현판 제작의 일인자가 되었다. 이후 영남 지역에서 제작되는 현판은 거의 운경의 손을 거쳐 갔다.

1979년에는 경남 의령의 충익공 忠翼公 곽재우 郭再祐 사당인 충의사 忠翼祠의 정당 正堂인 〈충의사 忠翼祠〉를 비롯한 〈홍의문 紅衣門〉 등 편액 5점을 현과 懸掛하였다. 같은 해 〈부산직할시청〉 현판과 합천 해인사 흥제암 弘濟庵의 〈보승문 普勝門〉 현판도 제작하였다. 이후 1980년에는 부산 동래읍성의 〈동장대 東將臺〉 〈망월대 望月臺〉 〈서장대 西將臺〉, 경남 산청 법계사 法界寺의 〈대웅전 大雄殿〉, 부산 다대진성 객사의 〈회원관 懷遠館〉, 1981년 부산 어린이대공원 안의 〈유정대사 충의비각 淬政大師忠義碑閣〉, 1982년 부산 충렬사 내 〈군관청 軍官廳〉, 1983년 경주 불

국사 <불교미술관>, 부산 충렬사 <소의당>, 1984년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내 이승만 대통령 집무처인 <사빈당>,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인 <민족정기> <안빈낙업> <국부병강> <영세자유>, 1984년 경북 봉화의 <구양서원>, 1985년 국립대전현충원의 <현충문>, 1987년 부산 금강공원 안의 <임진동래의총> <충흔각>과 충흔각 주변, 동래부 동현의 <동래부> <동현> <충신각> 등의 수많은 현판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운경이 새긴 것은 단지 ‘서체’가 아니라, 건축과 공간, 역사와 기억이 만나는 지점에 놓인 상징의 장이었다. 경주 불국사의 전각명, 임진왜란 전몰자를 추모하는 충렬사 편액, 한국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임시수도기념관의 사빈당, 의령 과재우 사당의 충의사까지, 각 현판은 그 장소의 역사성과 기능, 정치적·정신적 메시지를 무엇인지를 전제한 상태에서 새겨졌다. 서예가의 필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건물의 위계와 용도에 맞는 크기·비례·장중함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서너 글자로 건축의 성격을 압축하는 전각의 긴장은 운경 작품의 중요한 특질이다. 영남 각지에서 그의 현판이 사실상 기준처럼 받아들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운경의 작품 세계를 전각·판각·인장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일관된 미감과 조형 의식이 관통한다. 여러 도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음각·양각에 그치지 않고 판재의 테두리-바탕-선면-선면 내부 음각으로 이어지는 3단·4단 구성의 각법을 시도하여, 전각을 평면 인장의 차원을 넘어 입체 조형으로 구현하고 있다. 장법章法에서는 인면·현판 모두에서 안정된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굴곡진 파도무늬波濤文 바탕 처리 위에 글씨를 얹는 방식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빛에 따라 바탕의 음영이 달라져 문자의 부피감과 입체감이 강화되고 바다도시 부산이라는 장소성과도 자연스럽게 호응하며 건축과 자연, 문자 사이의 유기적 리듬을 자연스레 만들어 내었다.

부산·영남 문화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

운경의 예술을 떠받친 또 하나의 축은 친밀한 교유 관계와 지역 문화 네트워크였다. 스승 운여를 중심으로, 그는 청남 오제봉, 우석 김봉근, 우죽 양진니, 고천 배재식, 금암 배봉화, 대구의 죽농 서동균, 목산 나지강, 수암 한정달, 석대 송석희 등 부산·대구 서예가들과 긴밀히 왕래했다. 전각 분야에서는 석불 정기호, 청사 안광석, 미술평론가이자 전각가였던 한면자 석도륜과도 깊은 연



군관청_청남 오제봉 서, 운경 남정구 각, 1982



불국사 무설전_경봉스님 서, 운경 남정구 각, 1972.10



불국사 비로전_석주스님 서, 운경 남정구 각, 1972.10



영남대학교 의인정사_한솔 이효상 서, 운경 남정구 각, 1975



충렬사_박정희 서, 운경 남정구 각, 1977
(충렬사 정화작업 이후 현판)



동장대_우현 정중환 서, 운경 남정구 각, 1980.3



망월대_먼구름 한형석 서, 운경 남정구 각, 1980.3



부산어린이대공원 유정대시총의비각
_무불스님 서, 운경 남정구 각, 1981



사빈당_먼구름 한형석 서, 운경 남정구 각, 1984.6.
임시수도기념관



민족정기 안빈낙업_우남 이승만 서, 운경 남정구 각, 1984,
임시수도기념관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



임진동래의총_먼구름 한형석 서, 운경 남정구 각, 1987



충훈각_먼구름 한형석 서, 운경 남정구 각, 1987

을 맺었다. 한국화가 내고 박생광, 추강 이형섭, 청초 이석우, 일파 박영근 등과의 교류는 운경에게 자연·여백·색채에 대한 또 다른 감각을 제공했다. 특히 호형호제^{呼兄號弟}하던 사이로 회고되는 박영근과의 관계는, 부산과 대구 서화계를 잇는 실질적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인연의 상당수는 부산 광복동의 '회'다방과 같은 공간에서 형성되었다. 그곳은 서예가·화가·시인·평론가들이 모여 담론과 정보를 교환하는 도시 예술 살롱이었고, 운경은 그곳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조형 세계를 다져 나갔다.

건축과 예술 사이에 놓인 한 예인의 자리

운경 남정구는 스승 운여 김광업으로부터 이어진 전각의 맥을 현대적 감각으로 확장하며, 부산과 영남의 건축물에 문자 조형의 깊이를 더한 예인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현판들은 지역의 역사·기억·정체성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기록물이 되었고, 사찰·서원·누정·의열 공간 등 각 장소의 성격과 기운을 세심히 읽어낸 뒤 조형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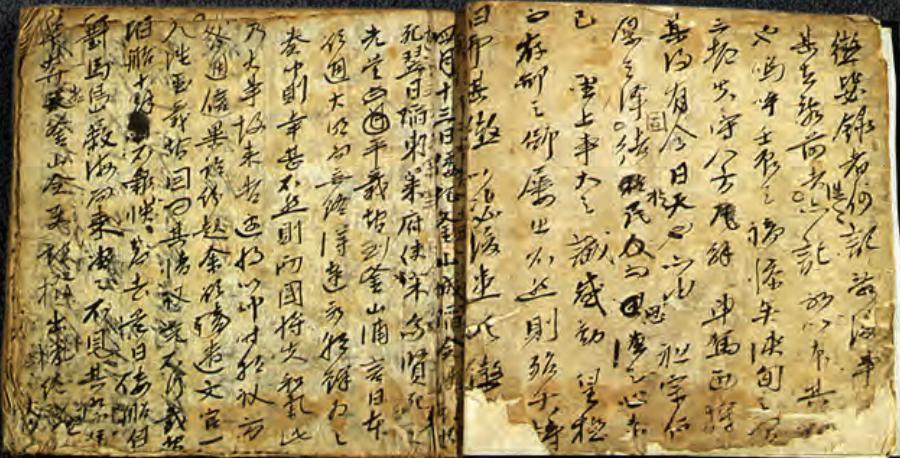
그는 전통 서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감수성을 절제된 방식으로 스며들게 하여,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는 시각적 풍경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갔다. 오늘날 우리가 부산 충렬사, 임시수도기념관, 동래읍성, 그리고 영남의 여러 사적지와 서원에서 마주하는 편액과 판각들은 대부분 그가 남긴 조형 언어의 흔적이다. 그 안에는 자연을 벗 삼아 살아온 그의 태도와 한 획 한 획을 전각 칼로 다듬어 온 예인의 집중과 호흡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예로부터 현판의 서예가에만 주목하고 전각가의 예술적 기량이나 노고는 등한시 되어 왔던 관습 때문에 전각가의 역사 기록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의 남겨진 현판·인장·목각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수습하고 기록하여, 부산·영남의 건축사·서화사 속에서 그의 위치를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일이 요구된다. 마침 2025년 12월, 유족들이 생전 작품을 집대성한 『구름에 밭 갈듯 새기다 - 雲耕 南廷九 篆刻』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는 운경의 예술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나아가 남정구의 전각과 현판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산·영남 문화사의 한 단면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지역 예술의 층위를 발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

세상의 窓

임진왜란 壬辰倭亂의 ‘속살’ 담은 류성룡의 정비록, ‘2025년의 대한민국 상황’을 경계한다



국보 제132호『정비록』, 국가유산청 제공

I

『선조 宣祖 23년(1590년), 임금께서 명하여 통신사로 갈만한 자들을 선발하도록 하니, 대신들은 첨지증추부사이자 서인 西人인 황윤길 黃允吉과 성균관 사성이자 동인 東人인 김성일 金誠一을 각각 정사 正使와 부사 副使에 임명하고 성균관 전적 허성 許成을 서장관 書狀官으로 삼았다. 신묘년(1591년) 봄에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 등이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 등과 함께 일본에서 돌아왔다.』

II

『배가 부산에 정박하자 황윤길은 반드시 전란 戰亂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일본 정황을 급하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성일의 대답은 달랐다. “신은 그러한 정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

고 그는 또 “황윤길이 인심을 동요시키니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에 조정 사람들은 황윤길을 지지하거나 김성일을 지지하며 의견이 나뉘었다. 내(류성룡)가 김성일에게, “그대의 말이 황윤길과 다르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할 것이요?”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왜인들이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은 너무 지나쳐서 안팎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III

『선조 24년(1591년) 봄 3월, 통신사 황윤길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왜국의 사신 등도 함께 왔다. 황윤길이 그간의 실정과 형

세를 치계馳啓하면서 “반드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복명復命한 뒤에 상(선조)이 불러 물으니, 황윤길은 치계 내용과 같이 대답하였다. 김성일이 아뢰기를, “신臣은 그러한 실정과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을 동요시키니 일의 마땅함에 매우 어긋납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묻기를, “풍신수길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이 어떻게 생겼던가?” 하니, 황윤길이 아뢰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성일이 아뢰기를, “그의 눈은 쥐와 같아서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됩니다”라고 하였다. (일본에서) 황윤길이 겁에 질려 체모를 잃은 일을 두고 김성일이 분개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하는 말마다 서로 어긋났다.

위의 I, II 상황은 류성룡柳成龍(1542~1607년)의 『징비록懲毖錄』(국보 132호)에 기록된 것으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 일본의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하여 통일하고 지배권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에 따라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귀국해서 통신사 정사인 김성일과 부사인 황윤길이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조정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또 III의 상황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에 기록된 내용으로, 선조와의 대담에서 두 통신사가 극명하게 다르게 보고하였음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두 통신사의 의견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했지만, 조정은 불행하게도 김성일의 의견에 머물렀고 그 의견을 토대로 각 도에 명하여 성을 쌓는 등 방비를 서두르던 것마저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런 판단과 조치가 조정과 백성에게 무엇을 안겼는지, 류성룡의 징비록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류성룡은 임란이 터졌을 때 군무를 총괄하던 임시 벼슬인 도체찰사와 재상으로서 전란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황윤길과 김성일로부터 다른 일본 정세 보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인 선조 24년(1592년) 4월 13일, 조정은 수십만의 왜군이 병선兵船을 타고 국경을 침범, 부산포가 함락되고 첨사 정발鄭撥이 전사했다는 장계를 받기에 이릅니다. 징비록이 적고 있는 부산포 함락의 상황에서 조선 군사의 방책防策이 얼마나 허접했고, 무기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발은 절영도(영도)에 사냥을 나갔다가 다급하게 성에 돌아왔는데, 왜군이 뒤따라 상륙한 뒤 사면에서 구름처럼 포위했고, 곧 성이 함락되기에 이릅니다. 경상 좌수사 박홍朴泓은 적의 형세에 놀라 출병조차 하지 못한 채 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고, 왜군은 군사를 나누어 서평포(동래)와 다대포를 함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대포 첨사 윤홍신尹興信이 힘을 다해 싸웠지만 전사했습니다.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 이각李珏은 적의 침입 소식에 동래로 들어갔으나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이 같이 성을 지키자고 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송상현은 성 남문에 올라 끝까지 군사를 지휘하며 싸웠지만 성은 함락되었고 왜군의 칼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가볍게 부산포를 무너뜨린 왜군은 파죽지세의 기세로 왕을 제압하기 위해 한양을 향해 북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전국 고을의 수령과 군사들은 왜적에 맞서기는커녕 겁에 질린 채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선조는 왜군이 부산포를 침략한 지 17일 만인 4월 30일 부랴부랴 도성 한양과 연도에서 목 놓아 통곡하는 백성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6월 30일의 주에 이르기까지 두 달 남짓한 피란길에 올라야 하는 등 온갖 수모와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IV

『4월 30일 새벽, 임금의 가마(여가御駕)가 서쪽으로 떠났다. 사헌부 장령 권협權恢이 뵙기를 청하여 임금 앞에 가까이 다가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한양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궁중의 호위 군사들이 모두 달아났고, 경루(밤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

도 울리지 않았다. 마산역(개성으로 넘어가는 역참)을 지날 때 밭에 있던 사람들이 어가 행렬을 보고 통곡하며 “나라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때 호종하며 종일 굶주린 사람들이 수라간에 난입하여 음식을 훔쳐 갔다. 5월 3일 왜군이 한양에 들어오니 유도대장과 도원수 등이 모두 도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들(明나라 측)은 왜가 침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양이 함락되었고 어가가 서쪽으로 파천한 데다 왜군이 평양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왜군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여도 이렇게 빠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우 의심하였다. 며칠 전 평양성 사람들은 어가가 평양을 떠나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각기 흘어져 도망가서 마을이 거의 텅 비게 되었다. 왜군들이 대동강가에 모습을 보이자 재신 노직 등은 종묘사직의 위패를 들고 궁인을 호위하면서 먼저 성을 나갔고, 그 모습을 본 평양성의 관리와 백성들은 난을 일으켰다. 칼을 들고 길을 가로막으며 함부로 공격하여 종묘사직의 위패가 땅에 떨어졌다. 백성들은 도망가는 재신들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희들은 평소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훔쳐 먹더니 지금은 이처럼 나라를 그르치고 백성을 속이느냐?” 우리나라를 연달아 사신을 요동(明)에 보내어 급보를 알리고 원병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명나라의 속국이 되겠다고 애걸하고 있었다. 왜군은 이미 평양을 함락시켰고, 왜군의 형세는 마치 물병을 쏟은 것과 같았다. 아침저녁 사이에 왜군이 압록강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는 등 사태가 매우 위급하였기 때문에 명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까지 생각한 것이다.』

IV의 장면에서는 징비록에서 묘사한 선조의 비루하기 그지없는 피난 과정과 형색, 절박한 상황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ongan’(蒙難)을 반대하는가 하면, 임금을 호종하는 군인들이 달아났고, 굶주린 백성들이 심지어 수라간에 난입,

왕과 일행들이 먹을 음식도 훔쳐 갔습니다. 또 녹봉을 훔쳐 먹더니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을 속인다는 원성을 들었고, 강토가 너무 빠르게 점령되자 명나라 측으로부터 조선이 일본 앞잡이 짓을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왕과 재신이 힘과 지혜를 모아 스스로 위란(危亂)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행동에 나서기는커녕 원병 요청과 함께 아예 명의 속국(屬國)이 되겠다고 애걸했다고 하니,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5천 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이 두 전쟁만큼 한민족이 천년만년 부끄러워 해야 할 변고(變故)는 없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왜냐? 국정 책임자들인 왕과 대신, 군인 등 관리들의 무능과 무방비, 무대책에다 당파를 이뤄 죽고 살기로 싸우는 자중지란(自中之亂)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7년이란 긴 전쟁을 통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강토는 유린당했고, 소중한 문화재를 강탈당하거나 소실되는 등 뼈아픈 피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초를 겪어놓고도 이 나라 지도층의 무능과 무방비, 무대책, 자중지란이라는 ‘몹쓸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정유재란 이후 318년 만인 1910년 또 일제(日制)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채 36년이란 긴 세월을 식민지배체제 하에서 허덕여야 했고, 1950년에는 미·중·소(美·中·蘇)의 이념대결 구도 속에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6.25 전쟁의 참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진전해야 함에도 계속 실수가 반복되니 그 인과(因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층의 무대책, 무방비와 자중지란 등은 계속 이어졌고, 백제(百濟) 고구려(高句麗) 신라(新羅) 발해(渤海) 고려(高麗) 등의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토 전체가

왜적의 침략을 받고 전란에 휩싸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었으면, 당연히 후대 지도층들은 ‘뼈아픈 전철^{前輶}의 역사’를 살펴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제 치하 36년과 6.25전쟁은 더 슬프고 부끄러운 뼈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류성룡의 징비록은 지어낸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전화^{戰編} 극복에 전력투구한 경험담을 피력한 ‘임진왜란 극복기’입니다. 그는 임란 발발 후 도체찰사^{都體察使}와 영의정^{領議政} 등을 맡아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전란의 구석구석을 챙기는 군무^{軍務}를 총괄했고, 와중에 불후의 명장 이순신^{李舜臣}과 권율^{權慤}을 천거했습니다. 또 국방도감을 설치해 군비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에도 계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류성룡은 정유재란 이듬해인 1598년 사탈관직 되어 고향인 안동으로 낙향한 뒤 선조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임진왜란 때 겪은 교훈을 남기기 위한 저술에 몰두, 선조 37년(1604년)에 집필을 마쳤고, 인조^{仁祖} 11년(1633년) 그의 아들 류진^{柳珍}이 부친의 문집 『서애집』과 합본한 형태로 징비록을 간행하였습니다. 징비록이란 이름은 『시경^{時經}』 「소비편^{小憲篇}」에 적혀 있는 “내가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憲後患)”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이 워낙 충실하고 알차서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전너갔고, 1695년 암마토야 이베에^{大和屋伊兵衛}가 일본어 훈독을 달아 징비록을 간행한 것을 계기로 일본 식자총에서도 널리 읽혔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 책을 통해 두 왜란과 관련한 조선 측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하니, 그들의 사료적 가치 존중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지독한 혼란 상황’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영어의 몸이 되었고, 제22대 국회 여야는 이와 관련해 내란이냐 아니냐를 놓고 극도

의 대립각을 세운 채 연일 한 치 양보 없는 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은 채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추락, 경제가 힘들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질서는 과거의 미국이라는 단일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일극^{一極} 체제’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 강국과 중견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극화^{多極化}로의 전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국제기구, 규범 기반 협력 등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무역·금융·기술 영역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무역과 공급망, 금융 체계가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외교·안보·기술패권 경쟁과 역이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반도체, 첨단 기술 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이 되면서 기술·데이터 주권도 전략 자산화하고 있죠. 한국은 특히 지정학적으로 미중 대립, 미일 동맹, 중러 관계, 북핵·남중국해·대만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얹혀 있으므로 조금도 빤히 보여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치계를 포함해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 ‘불확실성’에 대해 치밀하게 대비해야 하며, 두루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400여 년 전 큰 전란을 겪은 뒤 ‘징계하고(懲), 삼갈 것(懲)’을 주창한 류성룡의 명저 징비록의 가치가 큰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의 주체는 ‘나’이지만, 싸움의 대상은 결코 ‘우리끼리’가 아니죠. 싸움의 무대 또한 ‘우리 내부’가 아닌 ‘드넓은 세계’여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부질없는’ 진흙탕 싸움 당장 그만두게 할 획기적인 방도는 없을까”라는 절규가 필자의 가슴에 만 영커있는 건가요?

글_심수학 언론인·저널리스트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4화

「용두산 엘레지」와 194계단



1960년대 중반 크게 히트한 고봉산의 자작곡 「용두산 엘레지」 레코드(박명규)

부산은 엘레지의 고향이다. 부산의 동부권과 중부권을 아우르는 「해운대 엘레지」와 「용두산 엘레지」가 이를 말한다. 그것도 술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제목으로 둔 노래이기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바다를 품은 해운대는 이 지역의 신도시로서 명성이 자자하지만, 용두산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부산의 원도심에 자리한 도심 속 조용한 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용두산 엘레지」 노래만큼은 기세가 대단하다. 나훈아, 주현미, 하춘화, 김용임 등 술한 원로가수들이 수차례 리메이크하였고, 최근에는 송가인, 김의영, 전유진, 배아현, 김준수, 빈에서 등 미스트롯과 현역가왕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 젊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불러서 마치 국민가요처럼 되었다. 그러면 왜 부산에서는 이 두 곳을 배경으로 슬픈 엘레지(elegy; 悲歌)가 불리게 되었을까? 그것도 연인과의 이별에서 오는 쓸쓸함과 아쉬움의 노래를 말이다.

되돌아보면, 해운대와 용두산은 예전부터 부산지역에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그만이었다. 1950~60년대만 해도 해운대는 교통편이 썩 좋지 않은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해수욕장과 온천이 있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었다. 이에 비해 용두산은 남포동, 광복동 그리고 국제시장과 자갈치를 곁에 두고 있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곳이 많은 데다 접근성마저 좋아 주야로 청춘남녀들의 발길이 잦았다. 한마디로 그 무렵 용두산은 부산 최고의 중심가를 형성한 곳이었기에 많은 사람에게 추억과 그리움을 안겨 준 공원이자 안식처로 유명했다. 그리고 용두산을 오르는 길은 광복동에서 194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접근성이 좋았다. 더구나 술한 연인들이 이곳에서 가위바위보 계단 오르내리기 게임을 하며 사랑을 다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남녀 간 사랑의 노래는 만남의 결실에서 오는 달콤함보다 이별로 인한 아픔이 더 가슴을 울

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별의 정서를 노래로 불러진 것이 부산판 엘레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변치 말자
한발 올려 맹세하고 두발 딛어 언약하던
한 계단 두 계단 일백구십 사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혼자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아~ 아~ 못 잊어 운다

-「용두산 엘레지」 가사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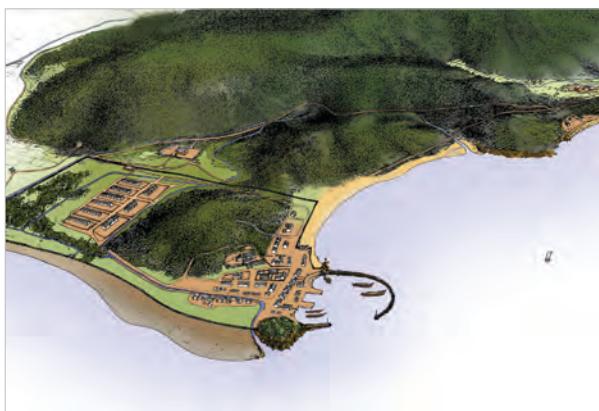
이 노래는 14년간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전블루스」의 가사를 만들어 한순간에 작사가로서 유명세를 탄 경남 울산 출신의 최지수가 노랫말을 만들고, 여기에 곡을 붙인 음악인은 1927년 황해도 연백 출신의 고봉산이었다. 본명이 김민우인 고봉산은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하여 악극단 생활을 하다 1961년에 「아메리칸 마도로스」를 불러 34살에 가수로 데뷔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용두산 엘레지」를 직접 불러 비로소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흔히들 가요 「용두산 엘리지」에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아쉬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들 한다. 여기에 고봉산이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특별한 사연을 알게 되면, 이 노래에 또 다른 애절한 심사가 묻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1957년 손인호가 불러 크게 히트한 「울어라 기타줄」은 본래 가수 고봉산이 노래하기로 작곡가와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공연 중에 느닷없이 이 곡이 다른 가수에게 주어져 불리고 있더라는 것. 바로 배반을 당했음을 안 고봉산은 그날부터 작곡 공부에 매진했고, 곡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그날의 일을 기억해 글로 남긴 메모지와 함께 악보를 들고 당시 아세아레코드주식회사 최지수 사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곡을 다듬어 야심 차게 내어놓은 첫 노래가 「용두산 엘레지」였다. 그러나 2년 후에 이 곡의 2절을 개사하면서 제목도 「추억의 용두산」으로 재취입하여 드디어 인기 곡이 되었다.¹⁾



1 1970년 용두산공원 주변(부산근대역사관)
2 1970년대 부산의 중심축인 용두산과 부산시청(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

또한, 노래 가사는 처음부터 의인법을 써가며 용두산을 두 번이나 부르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용두산은 많은 사람에게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대상이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흐르는 애절한 선율 속에는 와신상담의 굳은 마음으로 일궈낸 한 인생의 드라마틱한 성공 이야기가 은근히 풍긴다. 그리고 공원으로 오르는 '일백 구십 사(194)계단'도 한층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용두산을 오르내리는 길은 여럿이다. 그전날 용두산의 주통로 구실을 했던 194계단은 숫자만 변했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 216계단으로 남아 있다. 이제 광복동에서 오르는 편의시설은 에스컬레이터가



초량왜관 재현 기록화(김충진 작)



부산항세부도(1907년,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주인공이다. 에스컬레이터 양측으로 놓여있는 166계단은 주로 내려오는 역할만 한다. 암튼 이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용두산 순환도로에 도착하면 다시 50계단을 올라야 만 용두산 공원에 도달할 수 있다.

계단하면 빠뜨릴 수 없는 도시가 부산이다. 산세가 강해 서일까? 도시 곳곳에 계단이 존재한다. 이들 계단은 대부분 숫자로 이름 지어져 있다. 먼저 부산계단의 대명사인 중구 동광동의 40계단을 비롯하여 지금은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사라진 남구 우암동의 60계단도 한때 부산항을 바라볼 수 있어 유명했었다. 서구 감천문화마을은 수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48계단이 으뜸이다. 여기에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서구 닥밭골의 소망계단은 192계단이다. 동구도 계단에서 지지 않는 지역이다. 최근에 널리 알려진 초량동 이바구길의 168계단에서부터 '짬마이 감성'이 묻어 있는 호천마을의 180계단과 증산공원의 190계단도 경사도가 높은 아찔아찔한 하늘계단에 속한다. 이처럼 부산의 계단도 처한 상황에 따라 만들다 보니 다양한 계단 숫자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노래 속 주인공은 중구 동광동 「경상도 아가씨」의 40계단과 「용두산 엘레지」의 194계단이다. 그러면 용두산 공원의 194계단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 아직까지 이 계단에 대한 정확한 공사 개요나 뒷얘기는 거의 없다. 단지 일제강점기

에 일본인들이 용두산공원을 조성할 때 만들어졌고, 오늘 날까지 공원을 오르내리는 주통로로서 여전히 가요 속에서 '일백 구십 사 계단'으로 꾸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잘 아시다시피 용두산은 해발 49미터로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나지막한 산이다. 아득한 예전에는 이 지역은 초량으로서 용두산을 초량소산이라 불렸다. 때로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해서 송현산이라 부르기도 했다. 개항 이후로는 용두산 또는 중산中山이라 불렸고,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붙인 우남공원, 4.19 이후로는 용두산공원으로 불렸다. 이처럼 용두산은 숱한 이름의 변화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스민 유서 깊은 산이다.

용두산 주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1678년(숙종 4)에 초량왜관이 들어서고부터였다. 동구 수정동 주변에 있었던 두모포왜관이 협소하여 초량소산 쪽으로 이사한 이후, 이곳을 초량왜관이라 부르면서 일본 막부의 위임을 받은 대마도 번주가 조선과 외교·통상 업무를 수행하던 공관이었다. 규모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약 10만 평의 대지에 2미터 높이의 돌담을 치고, 대마도에서 전너온 400~500명의 건장한 사내들만 사는 금녀의 공간이었다. 번주는 400여 년이 넘게 조선과의 공사무역公私貿易에서 매년 수십 척의 세 견선을 띄워가며 무역 독점의 수혜를 누렸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인 1868년, 막부가 무너지고 새로 메이지 정

부가 들어서면서 초량왜관은 일대 큰 변혁을 맞게 된다. 먼저 1872년 5월 28일 대마도 번주가 관할하던 초량왜관을 일본 외무성에서 접수한 다음, 8월 17일에는 대마도 일원을 나가사키현 관할에 두고, 9월 16일에는 이름마저 '일본 공관'으로 바꾸고서 초량왜관의 수장인 관수_{館守}에게 외무성 근무 발령을 내린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던 필요 인원 83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귀국시켜 대마도주와 완전히 결별시켜 버린다.²⁾ 줄지어 무역 특혜 공간으로서 대마도민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초량왜관을 잃어버렸으니 대마도주와 대마 주민들의 혀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게다. 우연의 일치일까? 1678년 용두산에 초량왜관이 들어서고, 1872년 일본공관으로 바뀔 때까지 존재했던 기간은 정확히 '194년'이었다. 용두산의 '194계단'의 수치와 일치한다. 이 정도라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역사적인 공간이 아닐까?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초량왜관은 일본인 전관거류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수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게 된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도 대마도 사람들의 기득권은 한동안 존재했었다. 초량왜관 시절 용두산에 모시고 통상선의 안전을 빌던 대마도인의 사당도 세월 속에 일본인의 신사_{神社}로 바뀌면서 초량왜관의 흔적은 하나 둘 사라져 갔다. 1916년 전관거류지역의 일본인들은 용두산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계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무렵 대마도인들은 그들이 누려왔던 194년이란 권세의 역사를 이곳 돌계단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애통한 마음을 묻지는 않았을까? 역사란 게 마치 퍼즐게임과 같아서 194계단을 통해 지난 역사를 유추하게 되고,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 소재가 된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비록 개항 이후 초량왜관의 공간이 그네들의 전관구역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200년에 가까운 부산 초량왜관을 통한 조선과 일본과의 통상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 심지어 바다를 통금하던 해금시대였던 그 무렵,



용두산공원 전경(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

부산은 의해로 열려있는 조선의 유일한 개항장이었고, 이 목耳이 집중되던 공간이었다. 특히 조정은 동래부사에게 초량왜관을 통한 대일 외교와 무역 업무를 위임하여 조선의 통제 권한과 함께 면방 최고 수장으로서 예우했다. 이처럼 초량왜관은 부산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이기에 그 중심축인 용두산 또한 외면하지 못할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세월 따라 변하는 건 인심만 아니라 산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용두산은 늘 그 자리에 머물며 길손을 맞는다. 변한 게 있다면 그 전날의 초량왜관과 신사와 같은 일본인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대신 이순신 장군 동상, 부산타워, 꽃시계탑, 종각 그리고 안희제 선생 흉상 등이 들어서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술한 기념비도 얼굴을 내밀고 있건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용두산 엘레지」 노래비는 보이지 않는다. 이 땨에 누군가 용두산을 찾았다가 허전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릴지도 모른다.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1 1971년 은방울자매가 「추억의 용두산」으로 리메이크하자, 이어서 1973년 김상진은 「용두산 엘레지」로 하였다. 그러나 창법이 왜색조, 가사가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1973년 나훈아는 「추억의 용두산」으로 취입하였고, 이후 한동안 「추억의 용두산」이 대세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원제목인 「용두산 엘레지」로 돌아왔다.

2 나가도메 하사에 永留久惠, 『對馬國志』 제3권, 「근대·현대편 관계연표」, P.189

제68회 부산시 문화상, 6개 부문 수상자 선정

정해영(자연과학) 강동수(문학) 고정화(공연예술) 김수길(시각예술) 박지영(전통예술) 유재우(공간예술)

부산시는 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부산 문화발전에 기여한 6명을 제68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10월 30일 오후 4시 복합문화공간 도모현 야외정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자연과학 부문 정해영 부산대 석학교수, 문학 부문 강동수 소설가, 공연예술 부문 고정화 부산교대 명예교수, 시각예술 부문 김수길 전 신라대 교수, 전통예술 부문 박지영 동래지신밟기보존회장, 공간예술 부문 유재우 부산대 교수다.

정해영 부산대 석학교수는 악학 및 노화 과학연구 분야에서 58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적 영향력과 공헌을 인정받았으며, 연구개발 산업화와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와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강동수 소설가는 세계일보 신춘문예 당선(1994년)을 계기로 등단한 이후 여러 권의 소설집과 산문집을 발표했으며, 요산문학상을 비롯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고정화 부산교대 명예교수는 100여 회가 넘는 문화공연과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했고, 시 문화정책 추진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역 공연예술 발전에 힘써 왔다. 김수길 전 신라대 교수는 스승의 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 국제비엔날레 참가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 부산의 전통회화 분야 계승·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박지영 동래지신밟기보존회 회장은 지역 문화유산인 동래지신밟기와 동래학춤을 전승하고, 문화유산 전수관 활성화 사업과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문화유산을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유재우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는 부산국제건축제 집행위원장과 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역생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센터장으로 활동하고 부산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교육사업에 힘쓰는 등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부산시 문화상은 부산시 문화 분야의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1957년 최초 시상 이후 현재까지 42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여, ‘부산시 문화상’을 통해 그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자연과학 부문
정 해 영

문학 부문
강 동 수

공연예술 부문
고 정 화

시각예술 부문
김 수 길

전통예술 부문
박 지 영

공간예술 부문
유 재 우



제11회 부산국악축제Ⅱ 여성국극 〈가야산 연가〉

12. 7.(일)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한국 근현대 공연예술사에서 '여성국극'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 여성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며 민중의 감정과 공동체의 희망을 예술로 승화시킨 숭고한 유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국악협회(회장 강명옥)가 선보이는 〈가야산 연가〉는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랑과 인내로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한 남매의 고대 설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체적 정의를 성찰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본 공연이 여성국극의 예술적 정체성과 미학적 깊이를 되새기며 세대 간 공감을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의 051)644-5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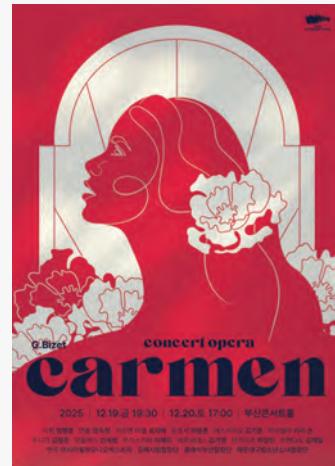


2025 춤소리예술단 정기공연 김정원의 춤 열세 번째 이야기 〈한판놀음 춤으로 흥으로〉

12. 13.(토) 오후 6시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연악당)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본 공연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전통문화를 굳건히 지켜온 예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긴다. 〈한판놀음 춤으로 흥으로〉는 '놀자'에서 시작해 춤과 흥으로 이어지는 멋스럽고 신명 나는 전통춤의 무대를 펼친다. 김정원의 춤 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명인들의 예술적 메소드와 교류하며 전통을 새롭게 계승한 예인들의 흔을 기린다.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동래학춤과 박병천 선생을 비롯해 이경화, 김평호, 서한우 등 구미 무을농악 예인 시대의 전통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창조적 재해석'의 감동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문의 010-4567-8071



콘서트오페라 〈카르멘〉

12. 19.(금) 오후 7시 30분 /
20.(토) 오후 5시
부산콘서트홀

정명훈 클래식 부산 예술감독이 국내에서 20년 만에 오페라 〈카르멘〉을 지휘한다. 카르멘은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오페라로, 각기 다른 계층 주인공들의 갈등과 사랑을 음악적 선율로 표현한 명작이다. 정명훈이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APO)]를 지휘하고,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출연하여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돈 호세 역은 테너 이용훈, 카르멘 역은 메조소프라노 마셀 로지에가, 에스카미요 역은 바리톤 김기훈이 연기한다. 이 외에도 [김해시립합창단], [클래식부산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웅장함과 감동을 한 층 더할 예정이다.

문의 051)640-8888



안개는 독백 중이다 박혜숙 / 책펴냄열린시

박혜숙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안개는 독백 중이다』는 일상에 스며든 풍경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하며,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을 전송하고 담담하게 풀어낸다. 시인은 안개 끈 바다, 광장 같은 익숙한 현실의 장소뿐만 아니라 「오솔길이 들다」처럼 모니터 속 가상의 공간에서도 상상으로 거닐고 사유하면서 그 안에 깃든 감정의 결을 놓치지 않는다. 표제작 「안개는 독백 중이다」에서는 안개 끈 북향과 신선대의 풍경을 통해, 침묵 속에 흘러지는 시간과 공간의 결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경계 없이 이어지는 삶의 서사를 조용히 들려준다. 오랜 시간 문단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시인의 내면 여정이 시편마다 잔잔한 독백처럼 스며 있다.



꼴라쥬와 근대건축공간 조승구 / 도서출판 논문의 집

조승구 교수는 꼴라쥬 Collage를 단순한 미학적 장치가 아니라, 건축적 사유를 이끄는 구성 원리이자 해석의 틀로 제안하며, 해외 주요 건축이론가들의 논의를 본서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꼴라쥬의 기원과 개념을 정리하고, 2부에서는 근대건축가들의 주요 작업을 분석하며, 3부에서는 건축 매체와 평면의 시각적 실험을 다룬다. 마지막 4부에서는 건축적 꼴라쥬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병차·파편·레이어링·시각성의 정치학·매체적 실험·시공간적 다층성' 등 여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 현대 공간을 읽어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이 어디까지나 사유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이어질 두 권의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남긴다.



달빛 속 천상을 날다 신진식 / 예인문화사

신진식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달빛 속 천상을 날다』는 자연과 일상, 추억과 시대를 관통하는 시인의 시선을 맑고 따뜻한 언어로 담아낸다. 표제작 「달빛 속 천상을 날다」의 '수줍은 마음으로 달빛 속 천상을 날다'는 시구처럼, 번뇌를 털고 천상의 축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염원이 시편마다 담겨 있다. 시집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보름달을 보면'과 2부 '원두막 풍경', 3부 '저는 괜찮습니다'에서는 일상과 회상의 풍경들을 조용하고 서정적으로 그려내며, 4부 '부산 좋아라'에서는 부산에 대한 애정과 기억을 담았다. 마지막 5부 '찌꺼기의 외침'에서는 사회적 신념과 메시지를 보다 직설적으로 풀어낸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빙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월간『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회)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500,000
· 표4 (뒷표지) 마감!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계재 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월간『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와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Play on Busan
문화공연



부산시민 도서교환전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정가 5,000원

12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